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發行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옴 하벨고 青山膏

阿鼻叫喚의生地獄 死傷者不知其數
黃河堤防決潰의慘狀

【開封十五日發同盟】支那軍의黃河堤防破壞로 말미아마 損害는 이로形言할수업는바로 決潰口는 어미 四百米, 延長七十支里 隴海線中牟附近을 中心으로하는 最大河幅은 七支里에 미처그被害面積은 四百五十萬平方支里로一面水底에 浸沒되엿다 이미 그中間에끼인 支那部落은 中牟를爲始로 大小千餘住民數十萬이미처避難치못하야阿鼻叫喚의巷으로化하야 文字그대로現世의生地獄그慘狀을 現出하고 잇다 開封에 駐屯中인 皇軍은 곳 岩倉工兵部隊中村自動車隊를 出動시켜夜船을가지고勇敢히丘陵에 남어서戰慄하고잇는 避難民을 徹夜救助하고잇다

【開封十四日發同盟】支那軍의黃河堤防決潰에依한 增水는刻刻으로 擴大되어 隴海線中牟를中心으로 約五十里에 亘하야濁水가 漲溢되여 一丈五尺의 中牟城壁은 겨우 一尺을 남겻슬뿐이다 그러나線路는 놉기때문에 住民은 線路를 따라東方으로 避難하고잇다 我軍은夜船으로 必死의 救助作業을繼續하고잇는바 開封의 治安維持會에서는 附近一帶의 住民五百餘名이 自發的으로 救助作業에 當하고십다는旨를 申請해왓스므로夜船百數十隻으로 이를住民과함께 救出作業에當하고잇다 一方氾濫한물은 中牟附近으로부터賈魯河와및 潁河上流로注入케하기爲하야 堤防과및 河道를構築하고잇다 目下判明된 土民의死傷은 數萬에達할模樣이다

時事解說

米支新銀協定

米國政府가昨年七月 國民政府特使孔祥熙의 渡米를 機會로 米國의金과 交換으로 支那銀을 買入할 協定을 締結한것은 周知의 事實인데 이米支協定에 基한 支那로부터의銀輸出이 今年四月에完了되엇스므로 米支兩國間에는 銀買入에關하야 다시 어떠한 諒解가 成立되엇슬것으로 消息通에서는 推斷하고 엿섯는데 果然米國政府는 今回다시 支那銀買入에關하야 國民政府當局과 新協定을締結[illegible]

[illegible] 右協定에 關해서는 [illegible] 의 見解와가티 [illegible] 의 諒解는 이미 今年四月에 成立되엇고 正式發表만 못今되엿슬뿐인데 財務長官의 發表도 右協定은 이미 效力을 發生하고잇다고 하엿슬뿐이오 其他의 詳細한 內容에關해서는 一切 言及을 避하엿다하므로 그協定細目은 알길이업스나 結局 國府는 右協定에 基하야 支那銀貨를 米國에向하야 積出하고 이를 米國에서 弗勘定으로 引換保有하게될것은 去年의 協定과 다름이업슬것이오 從來와 相違한것은 이때까지는 國府가支那銀貨를 [illegible]

[illegible] 抗日戰에 必要한 軍需品輸入을爲한 唯一한資金으로서 物資購入에當하엿슬것 [illegible] 支那事變勃發以後에는 [illegible] 本位制放棄로 銀貨回收에서 [illegible] 入하야 國府의 [illegible] 持에 [illegible] 니와 米國의 銀買上政策이 업섯드면· 多量의保有銀으로도 支那의對外購買力은 顯著히 減退되엇슬것이어 明白하[illegible] 三六年以來 米國財務省이二億五千萬오스의 支那銀을 買上하엿다고 [illegible] 八個月동안에 約六千萬弗이 積出되엇다고하니 支那의唯一한 資金인 銀의保有高도 漢日減退되고 잇는것이分明하니 長期抗戰의 經濟的持續性이 오직 銀保有高에 달렷다고 보는 現階段에서 新銀協定이 成立된것은 亦是 注目할現象의 하나이라고하지안흘수업다。

聯盟阿片諮問委員會

【쥬네브十四日發同盟】聯盟阿片諮問委員會는 十四日午前十時半에續開한바 劈頭 帝國代表天羽瑞西公使는 滿洲國、北支占領地帶에서의 阿片取引에關한 胡世澤支那代表、米國、加奈陀、埃及各代表의 非難을 逐一反駁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日本軍當局이 占領地帶에 잇서서 不正取引乃至製造를 奬勵하며 또는이에關與하여잇는 事實은 全然업다 占領地帶의 不正取引의 增大云云의 胡代表의 말은 事實歪曲도 甚한것이다 日本軍은 社會上의各種罪惡을芟除하기爲하야 눈물겨운 努力을繼續하고잇다 米國代表는 朝鮮總督府가 公然壟取引을 奬勵하고잇다고하나 朝鮮의 阿片輸出은 國際條約의 條項에 準據한 正當한行爲가 아니냐

다음胡世澤支那代表는 또다시前述한 日本非難을 反覆한後 澳門에서의 葡萄牙當局의 措置도 遺憾되는點이 多大하다고 攻擊하엿는데 最後로 天羽代表는 白耳義代表갈모어氏의 勸告를 容認하야 委員會에 提出된 日本에關한 資料는 모두 根據가업는것뿐이므로 어쨋든 右에關하야 調査하도록하자고對答하엿다 그리고 委員會는 極東阿片問題에 關한 決議案을 作成하기로되엿다

漢口의動搖益甚
我遡江部隊肉薄으로

【南京十五日發同盟】中原으로進軍한皇軍의 進擊에 呼應하야敵第一線을 突破한 揚子江方面進擊部隊는 漢口要塞의 核心으로부터六百里되는 地點附近에 及하야 物資欠乏으로困難을맛보는武漢三鎭의 動搖는深大深刻味를띄게되엿다 確報에 依하면 漢口郊外附近一帶의 要所에는 防禦陣地의 構築을 急히하고잇스며江上에는 無數히 정크와및汽船을沈沒케하여 封鎖工事는갈자기活潑하게되엿다 一般으로 市內全體에는 이미逃亡하려는 氣分이濃厚하다 警備司令部에서는 一般市民에 對하야 家財道具를整頓하고 언제든지 避難할수잇도록 準備할것을 指令하는 同時에 避難하는者는 可及的水路를 利用하야 僻地로向하도록指揮하고잇다 그리고 前線으로부터 後送되어온 傷病兵과 避難民등으로 漢口는 어느듯 臨戰地帶에 들어간 雰圍氣가 全般에 漲溢되어잇다

宋美齡香港에避難

【上海十四日發同盟】漢口危機가 切迫됨에따라 軍事委員會幹部及要人들은 自己들만남어서 作戰에 從事中으로 軍事委員會는 今後局地的으로 設置치안코 國所에行營을두어 蔣介石及 그幕僚는 아모곳이고 移動키로되엿다 그리고 宋美齡은 蔣介石과 行動을 함께할수가 업게되야 三日中에 自家用 飛行機로 孔祥熙 宋子文을 비롯한 宋一族과 함께 香港에 赴하기로되엿다

樞密院定例本會議

【東京電話同盟】十五日의 樞密院定例本會議는 午前十時부터宮中東溜間에서 天皇陛下親臨下에開會한바 平沼 原 正副議長各顧問官 村上書記官長이 出席하엿다 政府側으로부터 近衛首相板垣陸相外 各閣僚 船田法制局長官 其他關係官列席하야

一、奏任文官特別任用令中改正의件(內閣賞勳局에理事官一名增員件)

一、關東局視學官特別任用令中改正의件(關東局視學官中從來文部省 朝鮮總督府 臺灣總督府視學官으로부터 特別任用의途가 잇섯든것을 改正하야 다시 在滿大使館視學官으로부터도 特別任用의途를開할것)

의二件을上議한바 村上書記官長으로부터 各其審査報告가잇서採決한結果 原案대로可決하고 天皇陛下入御하옵신後 同三十分散會하엿다

朝鮮神職會總會 來廿、廿一兩日開催

朝鮮神職會總會는 來二十、二十一의 兩日朝鮮神宮에서全鮮各道神職五十名參集下에 開催될터인바 總督府內務局에서는 同總會에

一、家庭祭祀의 普及에 關한具體的方策如何

라는 諮問을 發하야 家庭祭祀의 普及은 敬神生活의 基調이오 國體觀念培養의 一方途이라는 意見을 具體的으로 聽取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一戸總督府土木課事務官 十八日午後三時二十八分京城驛發赴任豫定

▲山川正氏(帝國發明協會朝鮮支部)轉任人事次來社

▲森田秀治郎氏(朝鮮工業協會)同上

敗殘兵數千도水中에

【開封十五日發同盟】黃河堤防을破壞하야數十萬의士民을塗炭의苦에빠지게한支那軍은 自己가만드른水禍로말미아마 天罰을받고잇다 即 鄭州東南方一村落의 集結한敗殘兵數千은 濁流로因하야全然孤島에남어잇게된 狀態로刻刻增加되는 濁流에바야흐로 홈쌀리게되어 全員이水底에 빠질것도 時間問題로되엿다

敵軍退路遮斷次 〇〇部隊潛山에肉薄

【南京十五日發同盟】桐城西方及西南方으로 追擊中인 〇〇部隊는 安慶으로부터 敗退한敵大部隊의 退路를遮斷하고저 急襲에急襲으로써 飽家橋 陶中기의敵陣地를 突破한後 十四日朝來潛山으로肉薄하고잇다 그리고 吉田飛行隊도 早朝부터 行動을開始하야 太湖方面의 敵狀을 偵察하고 空陸이서로 呼應하야 敵을西南方으로 壓迫中이다

昆明、香港間에 定期新航空路開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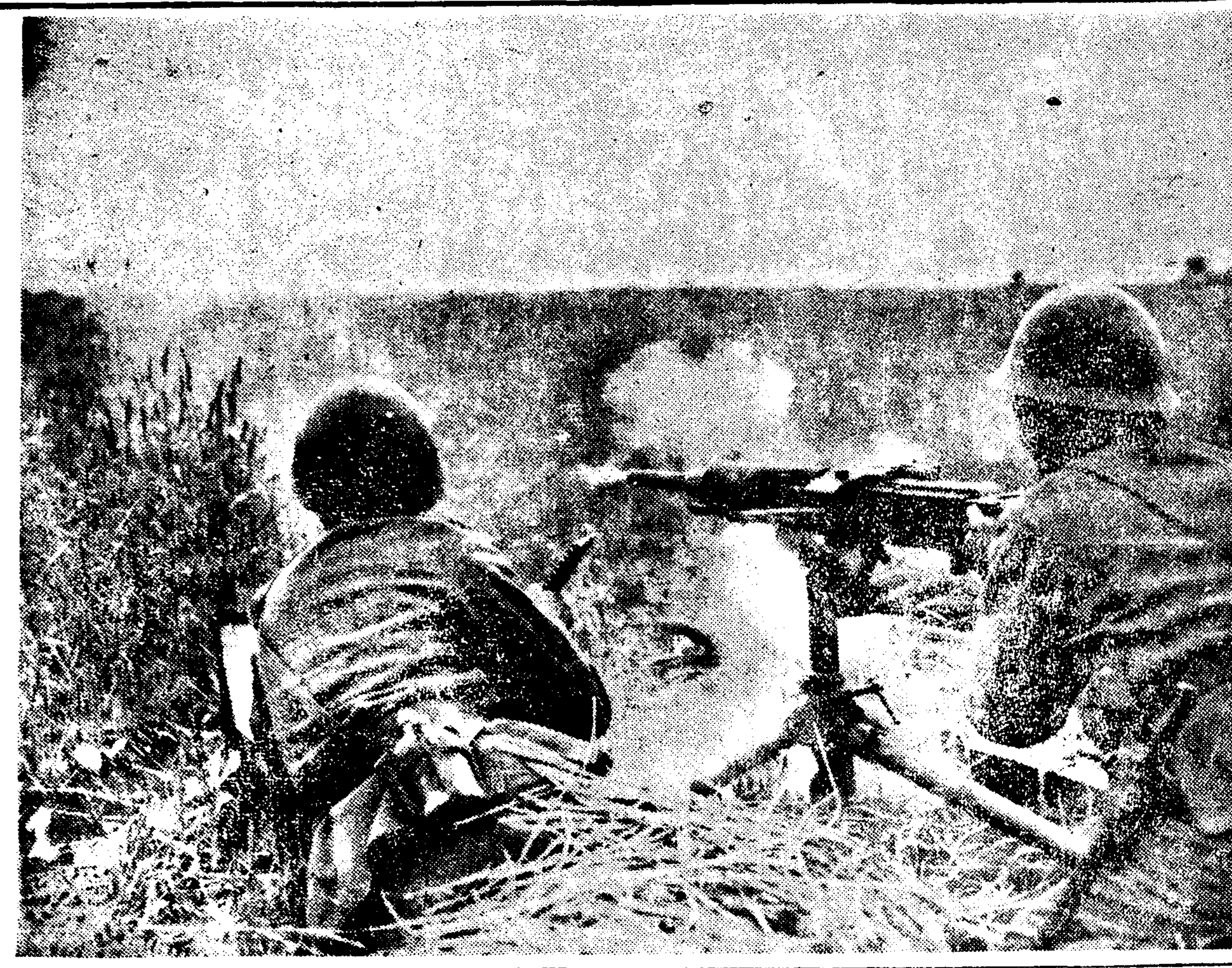
【香港十四日發同盟】國民政府의漢口遁遷에依하야 重要性을띄게된 雲南省昆明과 香港을連結하는定期航空路는 昨十三日歐亞航空公司가 處女飛行의任에當하고同社용커機는 十三日朝十時 昆明發 午後一時五十分 廣西省柳州에到着、同二時發 午後六時香港에 到着하엿다 同機는 十五日昆明을向하야 歸還의途에 發程할豫定이다

米艦隊司令官 麾下에危險回避指令

【紐育十四日發同盟】十四日紐育에 達한 漢口發AP電에 依하면 米國揚子江艦隊司令官 프렌는少將은 鄱湖上流水域에잇는麾下各砲艦에 對하야 日本軍의揚子江上流作戰이 開始된後에도그대로 任地에碇泊하야 所在米國人의 保護에 當하도록 指令을發하엿다고 한다 但各砲艦은 그行動을 日支兩國軍事當局에通告하야 不必要한 危險은 極力 이를回避토록 아울러命令을 發하엿다

東久邇宮妃殿下
十五日午後宮島御發朝鮮에
山陽線事故로御變更

【廣島電話同盟】白衣勇士를 御慰問하시고저 朝鮮에 오시는 東久邇宮妃聰子內親王殿下께서는 山陽本線土砂崩壞事故로 말미아마 御豫定을 御變更 十四日午後五時二十九分 宮島驛御着 嚴島岩惣에 入하섯다 十五日夕陽 宮島御發 朝鮮에向하실 御豫定이시다



〇〇敵陣에、十字砲火를 퍼붓는 我砲兵部隊

四代行委員制存續
結局現狀維持키로
政友總裁問題于先落着

【東京電話同盟】決戰投票放棄後의善後措置를 考究할 政友會代行委員會는 十四日午後 三時芝三緣亭에서開催 總務會도 同所에서併行開會 互相意見을 交換하며 協議를進行하엿는데 中島派의決戰 體勢가 解消되지안흔關係로 積極的 解決案을 創設치못하고 結局四代行委員制의 現狀維持대로 나가기로 決定하엿格으로 爲先結末짓게되엿다 따라 來二十日開會 豫定이든 黨大會는 中止하기로하고 午後八時散會하엿다 이리하야 問題만흔政友會總裁問題는 龍頭蛇尾로 끗난것이다

獨陸軍總司令 匈牙利를訪問

【부다페스트十四日發同盟】獨逸陸軍總司令官카이텔將軍은 今回匈牙利를 公式으로 訪問하기로되여 十四日 飛行機로 伯林으로부터 부다페스트府에到着 라츠參謀長以下 匈牙利 軍政首腦의 出迎을받엇다 카이텔將軍은 數日間부다페스트에 滯在하야 匈牙利軍當局과 會談을 遂할터인바 獨逸海軍總司令官레ー더ー提督의 訪問에 繼續하야 今回도陸軍總司令이 匈牙利를 訪問한것은 獨匈關係의 新展開를 示唆하는것이라하야 자못注目된다

伊太利閣僚會議 新陣營을强化?

【羅馬十三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十三日휘커·데르·카미나ー레의山莊에 스타라체黨書記長을爲始하야 레베르레베相、交通相、農相等을召集하고 關係閣僚會議를開催하엿다 會議의內容은 一切嚴秘에 부처잇는바 最近伊太利政府上層部의 人事異動에 對하야 여러가지 觀測이 行하고잇는때에 뭇솔리니首相은 右關係閣僚會議席上에서 伊太利現下의 微妙한 對外對內關係에 對處할 파시스트伊太利新陣營에 對하야最後의斷案을 내릴것으로 解釋된다

駐米英大使館
戰債不拂을通告

【華盛頓十四日發同盟】駐米英國大使館은 十四日國務省에 對하야 六月十六日로 期限이 到來하는 戰債年賦金八千五百六十七萬弗의 不拂을通告하엿다 이와同時에 英國政府는 交涉에依하야 滿足한結果를 期待할수잇는情勢가되면 어느때라도 戰債問題의 協議를 再開할意思가잇는旨까지 아울러通達하엿다 一方最近歸國하기로된 케네디駐英大使는 戰債問題解決案을 携行하고잇다는 報道가 傳하고잇는데 右에關하야 헐國務長官은 十四日記者團에게 다음가티말하엿다

『케네디大使가 戰債問題解決案을 携行하고 歸國한다는報道에 對하야 余는 아무것도 聞知하지못하엿다 戰債問題에 對하야는 現在로는 匈牙利政府로부터의 提案이 잇슬뿐으로 이提案은 方今議會에서審議中이며 國務省當局에서도 케네디大使의 歸國은 單純한私事에 不過하다』

루大統領署名完了 陸軍非軍事豫算案에

【華盛頓十四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十四日 議會上下兩院을通過한 總額一億九千六百萬弗의 一九三八ー九年度陸軍非軍事豫算案에 署名하엿다 同豫算은治水事業費 河川港灣修築費 파나마運河改修費 미시십피治水工事費等 陸軍省所管非軍事施設事業費를 包含한것이다

"聖慮에奉應하라"
陸軍志願兵開所式에際하야
南總督告辭

特別志願兵訓練所開所式은 十五日午前十時부터 京城帝大講堂에서 擧行되엿는데 南總督과小磯軍司令官은 다음과가튼 意味기픈告辭를 演述하엿다

告辭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創設의 準備가되여 本日로서 開所의 盛典을擧함에 當하야一言을告코저한다

惟컨대 輓近帝國國勢의 進展은 嚴厥乎 不已하야 皇道의 宣布는 東亞에 普遍하야 時局의 重大하고 經綸의 容易지안홈은 眞實로 曠古未曾有의 機運에 際會하엿다 此時를 當하야 陸軍特別志願兵制度實施가되여 半島同胞에게 國防의重責이 分荷된것은 玆에同慶不堪하는바로 斯域同胞로서 참으로 皇國臣民된本質에 徹底케하고 內鮮一體가되여 다가티 東亞의 新事態에 對處케하는 聖慮에 基한것으로 皇謨 深遠 眞實로 恐懼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本訓練所設置의 主旨 亦專혀 此制度의運營을 不誤하고 施設의適正을 期코저 設置한것으로 年頭以來 當局者銳意 그準備에 專念하야 本日의盛典을 보게된것이다 玆에 深히 그勞를 多하다

그러나 本訓練所의 今日은 祇是第一步이요 그前途는 지극히 遠하고 今後에 屬하는 일이다 凡 功은 成功當日의 成功이 아니요 그 因은 멀리잇서 本訓練所가 眞實로 堅實한 基礎를 確立하고 陸軍特別志願兵志願者訓練의 重大使命을 達하는데는 開所의 今日로부터 特히 周到하고 綿密한 訓練의 諸計畫을 樹立하야 職員各位의 一致協力에 依하야 不斷의 敎導感化와 生徒諸子에게 感應하는 自奮自勵의 總和에 俟할것이다 더욱히 生徒를 推輓한 道當局及 鄕黨官民의 深厚한 援助로 반드시 年復年 顯著한 業績을 擧하고 本訓練所 設立의目的과 國家의 要望에副할것을 確信한다

玆에 盛典에 臨하야 一言所懷를 陳하야 告辭로한다

昭和十三年六月十五日

朝鮮總督 南次郞

傳統을創始하라
小磯軍司令官祝辭

今日玆에 陸軍特別志願兵令에基한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開所式의 擧行을 보게된것은 衷心慶賀不堪하는바로 어[illegible] 바이다 [illegible] 史的盛典에 參列하야 祝辭를述함은 本職의 實로欣快로 여기는바이다 생각컨대 本所의目的은 [illegible] 의訓練所와 全然其本質을 달리하는것으로 陸軍兵이될 志願者를 鍛鍊陶冶하야 써 皇軍에編入할素養을 附與코저함에잇다 그리고 軍人에 緊要不可缺한 要務는 恒常胸中에기피 國體觀念에透徹하면서 夙夜堅實한精神 嚴格한規律과및旺盛한 體力의鍛鍊向上에 精進하야 一旦有事之秋에는 卽時奮然히 國難에當하며 가히 任務에邁進함에잇다 生徒諸子는 足히 此間의消息을 體得自發하야 모름직이 軍人必須의資性을涵養하며 敎育者 또한率先垂範하야 熱烈한 意氣와 旺盛한 責任觀念으로써 指導薰化를 遂成하고 兩者相俟하야 本所設立의 眞意를發揮하는同時에 光輝잇는 傳統의創始에 努力하야써 聖慮에 奉應하기를 希望하야 마지안는다

玆에 所懷를述하야 祝辭로한다

昭和十三年六月十五日

朝鮮軍司令官 小磯國昭

英對支援助委員
日本大使館에空爆反對抗議

【倫敦十四日發同盟】對支援助委員會主催의 廣東空爆反對週間은 十三日부터 開始된바 十四日리차드·아크랜드、로버트·윌프레드兩議員과및 對支援助委員會員모르드로이젠、머잘프라이兩女史等의 代表들은 日本大使館을 訪問하고 空爆反對抗議를하엿다 一行은 吉田大使에게會見을 要求하얏스나 마침大使가 不在中이때문에 그대로도라갓다

『爆擊者援助의米國』 米國몬러紙非難

【보스톤十四日發同盟】크리스챤 사이엔스 몬러紙는 十三日紙上에『爆擊者援助國은 今度 援助하고잇는 米國』이라 題한論說을 揭載하야 如左한論評을하엿다

國務省은 對日飛行機輸出을防止하고저한다고하나 이것은一方에서 攝擊을 加하면서 他方으로 爆擊에 抗議하고잇는 矛盾을 認定한것으로 歡迎할만하다 그리고 政府가 飛行機輸出에 不滿을 抱懷하고잇다는것만으로는合法的이오 또利益이 多大한 軍需貿易을阻止하기에는 充分치못하다 그리고 輿論이 더욱 强硬한行動을 굿세게要求하지 안는다면 이가튼要求가 實現될는지는 疑問이다 此際 英米兩國은 共同으로 自己犧牲의 法令을制定하여도 조흘것이다

部長級의大異動 來廿二日頃發令乎

全朝鮮各道에 産業部設置에伴한 內務、産業兩部長級의 大異動은 張成北 洪江原 楊忠北各參事官의 勇退補充과同時에總督府의 原案은 어미 拓務省에送付되여 來十七日의 閣議에附議할豫定인바 大谷拓相의歸任이 遲延되기때문에 同日에는 附議하지못하게될模樣이다 그러나 느저도 二十一日의 閣議에는 附議되여 翌二十二日에 正式으로 發令할豫定인데 異動의範圍는 內務 産業兩部長과 및專賣局事業課長大邱地方專賣局長의 補充도 同時에行하며 이에伴하야 稅務監督局各道課長 郡守等 約四十名에 及하는 廣範圍의異動이 잇슬것으로 觀測된다

八面鋒

◇黃河의 堤防을 허노아 軍隊를 溺死시키자는 戰術。그때문에 支那十數萬 人民이 溺死햇스니 奈何?

◇政友會總裁問題는 結局 現狀維持를 하기로하고、二十日의 黨大會도 中止하기로 하얏다고。

◇秦山鳴動鼠一匹格。結局 차와보와자 시원한것이 업는때문인가?

◇그러나 休息한 噴火口언제나 터질날이 업지안흘걸。

◇本社主催의 新人音樂會 昨夜 盛況裡 終始。新人의 前途에 光明이잇거라。

◇鎭南浦水源地住民이 自己네 祖上墳墓가 어찌될가하야 採留하는 警官에게 暴行。

◇暴行은 大不可。그러나 先祖의 墳墓를 念願한 끄티라는點은 생각할 問題。

小兒良藥
자라라살찌라하는 母性愛를通해서 病兒、虛弱兒에作用하는 靈効如神한金粒名藥
主効 간、경풍、감기、열、지에열、氣鬱、경련、우、도、토、역、夜泣、乳吐、靑便、消化不良、其他虛弱한小兒
樋屋奇應丸

二十粒부터十圓까지

讓渡 釜山府瀛州町
후쿠리二階建、新築旅館 現在盛業中電話有、設備完全 右讓受希望者는朝鮮日報釜山支社로同議하시요 電二八九七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털나는藥 후미나인
털나는약후미나인은皮膚科專門田中醫學博士가創製한것인대 털나는데 必要한適當한殺菌作用과興奮作用과營養作用을흥부해서 毛髮의發生을促하고 털의脫落과비듬을防止합니다
禿頭病 若禿●薄毛●脫毛●가리마버서진대●男女날대안나고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의藥店에잇슴 說明書申込次第進呈
東京市芝田村町電車通り 發賣元 東京藥院

朝報案內
犬病院은 (電話②四二六八番)

外科 肛門病科
入院設備 八院室全部個房
京城府樂園町一三五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四五二一
包莖手術每日施行

純國産 大黑葡萄酒
그대의…… 당신의…… 健康을 祝賀해서 大黑의 글라스를 들읍시다
家庭用으로 一升甁이有함
特賣規定
景品內容(一組分)
一等 金貳拾圓也 一口
二等 割引勸業債券一枚 三口
三等 純銀製カップ 五口
四等 秩父銘仙夜具地 十口
五等 パイロット萬年筆 廿口
大黑貯金箱
正規應募者에化粧用脂取紙一冊宛進呈
一、送先 東京市淀橋區下落合 大黑葡萄酒サービス係
一、抽籤方法 一口마다抽籤券一枚進呈 千口一組로番號各組共通
一、締切 本月中
一、發表 八月上旬

東京淀橋下落合 大黑葡萄酒株式會社

무릉病新藥
布哇大學總長 天六病院長 ドクトル高木博士 發見創製
ヒドノコール
▲注射와內服錠劑
▲副作用업슴
▲文獻贈呈
▲自宅治療可
▲本病이지금까지不治엿든理由
▲本病이不治가아닌理由
▲當硏究所의자랑과其使命
大阪市北區天神橋六丁目一 天六病院附屬
發賣元 高木化學硏究所

眼病專門內服良藥
청영관이
療法說明書無代進呈
進光堂本家

漁具
投網、鳥捕網、釣竿、繼竿、釣針、絹糸、麻糸、綿糸、其他各種
(定價表進呈)
京城府黃金町四丁目
製造卸商 海鮮商會
電話本局四三七〇番・振替京城二〇五七九番

ダンの素 ヨードケン
發賣元 光商會

少年 단 十錢

兩旅客列車脫線 死傷者二百餘名!

線路上에土砂崩積이原因

山陽本線에大惨事

【岡山電話同盟】 십오일오전세시이분경에 산양본선(山陽本線)화기(和氣)웅산(熊山)사이에잇는 웅산 신호소부근에서 전날밤부터 나린비로인하야 산허리가문허저서 상하양선이 모다 매몰되엿는데 이때문에 올나가든 열백십호열차와 나려오든 팔백일호의 두개 여객열차가 탈선전복하야 이백여명의 사상자를내엇다 현장은 일대수라장을일우엇다 이급보를바든 강산(岡山)운수사무소에서는 동다섯시오분에 구원열차를꾸미어서 강산시의 정야(町野)우택(友澤) 두의사를비롯하야 간호부 십수명과 선로공부백여명이 현장으로 급행하엿다 어제도 계속하야 구원열차를 꾸미는중이며 이때문에 강산역은 대혼란을 이르고잇다 (號外再錄)

重傷五十五名 即死十八名!

輕傷者도百六十七

【岡山電話同盟】 오늘새벽 산양선(山陽線)의 열차사고에 죽은사람이 십팔명 중상을입은사람이오십오명 경상백육십칠명이다. 죽은사람중 두명은 백신호열차기관사와 조수이고 남어지 십륙명은 화가산현(和歌山縣)교본소학교(橋本小學校)고등과 이년생이어서 구원반들도 모두 그참혹한정경에 눈물을 머금엇다.

사고의원인은 웅산(熊山)의하변신호소(下便信號所)와 역구내(驛構內)사이의 노파 삼미륙내지 사미돌되는축제(築堤)가 수일래의 호우로인하야 문허저서철로를 십여개가 늘어진것을 모르고 그대로열차가 진행한것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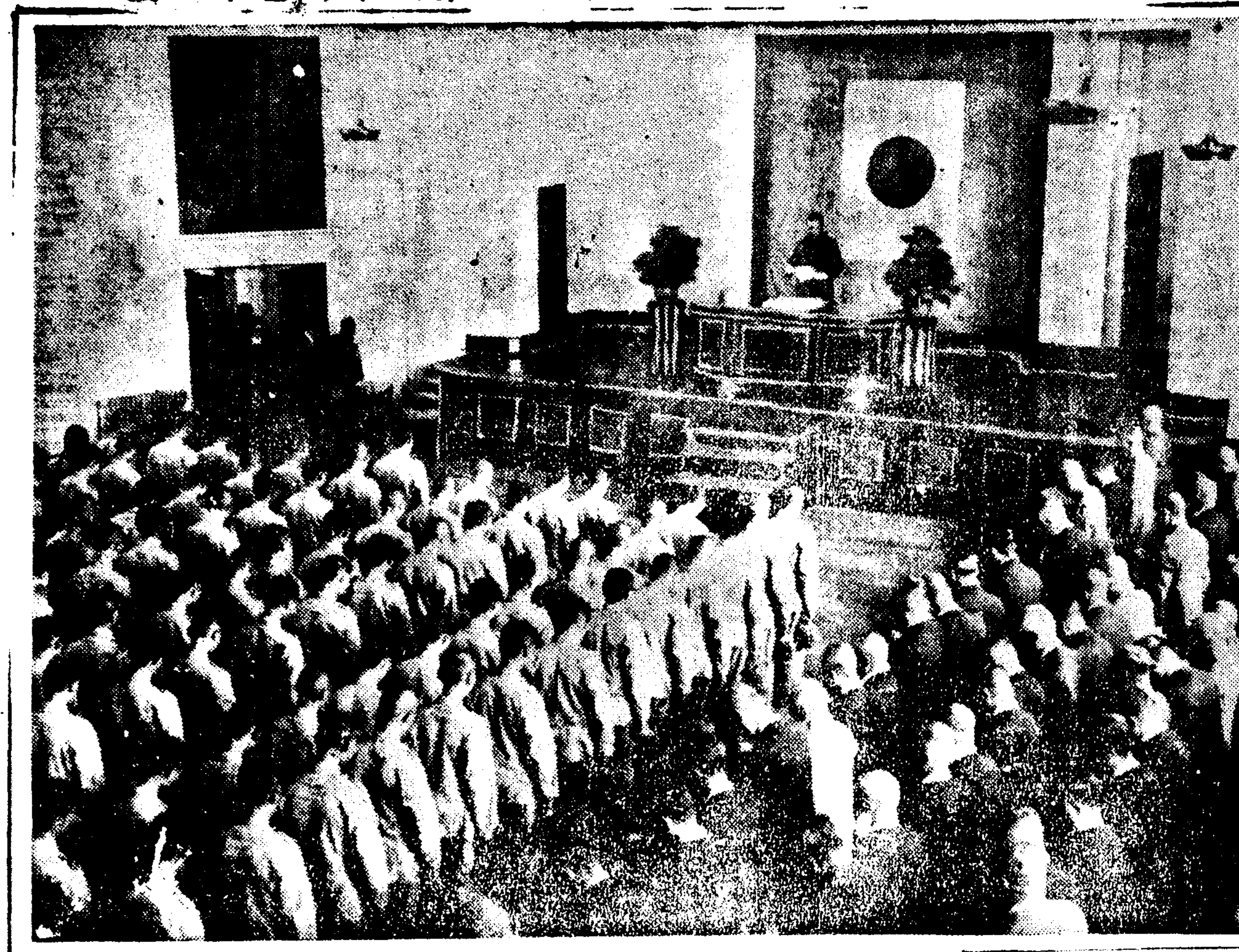
復舊作業僅完成

和氣, 熊山間開通

【岡山電話同盟】 철도당국 필사의작업으로 산양본선 화기웅산간(和氣熊山間)은 오전구시사십분부터 우선 단선(單線)으로 개통되엇다

遺骸十六體를 岡山驛에安置

【大阪電話同盟】 참사자십륙명의유해는 강산역(岡山驛)에 안치하고 중경상자는 一二一호열차에 수용, 그중 중태에빠저잇는 이십명은 희로(姬路)육군병원, 십구명은 시내병원에 수용하고 남어지 오십이명은 대판에 운반하야 철도병원에서가료하기로 되엿다



풀바테腐爛屍

십사일오후네시경에 한강하류인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高陽郡松浦面大化里) 압강가풀바테서 지나가든 행인이 부패된 시체하나를 발견하고 즉시일산(一山)주재소에 보고하엿스므로 동주재소원이 공의를대동하고 가서검시한결과 삼십사오세된 남자로 사후약일개월이나되는 익사체라는데 신원과자살원인은 소관서대문서에서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新義州府營瓦斯

十三日付로許可

신의주(新義州)부영와사 (府營瓦斯)사업은 그전부터 체신국에 신청중이던바 지난십삼일부로드디여 허가되엿다 이사업은 신의주부영으로 계획된것으로 수요자는 약사백호예정이며 와사는 안동(安東)으로부터 압록강철교를 거처 구입공급하게된다 만주국으로부터 와사를 구입함에는 관세(關稅)를물어야 하던것인데 작년팔월관세정률법(關稅定率法)을 개정하야 석탄와사는 관세가업시되여 사업의 경영상가장 유리하게된것이다 이신의주부영와사사업의 사업자금은 구만구천원으로써 간이생명보험적립금에서 융통차입할모양이다

西小門街의艶史

斷髮美少女失踪

경성한복판에서 색다른 외인집 마을을 일우고잇는 서소문(西小門町)일대의 중국인거리에서 향수(鄕愁)에못이겨하는 지나인청소년들간의 흠모의 적이던 단발한 묘령소녀가 가지가지의풍설을 남게노코 어데론지 행방을 감추어서 그들간의 화제거리가되여 잇다고한다

이소녀는 서내 서소문정구십번지동사는 중국인 송도민(宋桃民)의 장녀송연자(宋蓮子)(一七)로지금부터 십여년전에 장사하러 조선으로오는 부모를따라서 서울에와서 생장은 하엿다는데 무역상으로 치부를한 가정에서호화롭게 자라난그는 마침내 경성재류의 중국인 청소년들의흠모하는바가되여 가지가지의 풍설을남겨노코 십사일밤이래 행방을 감추엇슴으로 십오일아츰에 그의부친이 소관서대문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고한다

內地各校生徒

朝鮮와서勞役實習

동경제국대학(東大)、경도제국대학(京大)、북해도제국대학(北大)를 비롯하야 명고옥고등공업학교(名古屋高工)、웅본고등공업(熊本高工)、선대고등공업(仙臺高工)、금택고등공업(金澤高工)등 각학교학생생도 십팔명은 금년하기휴가중 조선에와서 경성, 리리(裡里)、부산(釜山)평양(平壤)、청진(淸津)등 각토목관구(土木管區)내에서 하천개수와 항만수축공사에 종사하야 실습하기로되엿다

失家兒

시내 이태원정 (梨泰院町)사백 설서번지 신재(辛在)의삼남 신이선(辛二善)(五)이는 십사일오후한시경에 그의모친 정씨와 장충단(奬忠壇)공원으로 산보를갓다가 큰거리로나와 혼자에 어머니의손을놋치고 길을일흔채 행방불명이되엿스므로 그의모친은 거리로다니며 찻다못하야 용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유괴나 당하지안엇나하야 시내각서에수배중이라한다

內金剛繁榮會

鐵道局에陳情

천하명산 금강산의 번영을위하야 놀 만흔활동을하고잇는내금강번영회(內金剛繁榮會)에서는 십삼일에 금강산시설에대한 여러가지 의견을드러서 철도국에 진정서(陳情書)를제출하엿다 그내용을드르면

▲금강산탐승객(探勝客)수선공사는『정부업자(指定業者)』에게맛겨서하는탓으로 수선공사가 충실치못하고 밧분이나 결함이생기는터인즉 이것을 내금강번영회에맛겨서하게할것

▲비로봉(毘盧峰)우에잇는 구미산장(久米山莊)이라는 려관은 금강산과 하등인연이업는 경성모 려관업자가 경영하고잇는터인데 이것을 내금강번영회에 맛겨서 경영케할것이며 또비로봉파다기에잇는차점(茶店)도 역시개인에게맛겨서하지말고 내금강번영회에맛길것

▲백마봉(白馬峰)우에도 차점을개설하도록하게하고 도수거체의로회한지점도 수선해줄것등 여러가지 항목이다

이에대하야 철도국에서는 그 주장하는이유가 모두상당한것이요 또 인정하나 좀 고려해본뒤에라야 확실한 회답을 할수잇슬터이라한다

體育界론첫膳物

一萬圓을欣擲

咸興韓百厦氏의特志

체육계를 위하야 쓰라고 만원을 선뜻내던저준 유지가잇다… 함흥부 대화정(咸興府大和町)한백하(韓百厦)씨는 수상경기(水上競技)의 향상발전과 수상구조법(水上救助法)을 널리 전조선적으로 보급시키고저 수상경기동호자들로 조직된 경성수영동우회(京城水泳同友會)에 일금만원을 희사하야 동회의발전을 기하기로 되엿다한다 전기한씨는 함흥의 실업가로써 함흥택씨ー주식회사 사장으로잇스면서 일직부터 체육계에 유의하야서 북청(北靑)에서도 거재를희사하야 운동장을시설하엿다한다 방금입경하야 장곡천정 비전옥에 투숙중인 한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수영동우회회장 조영하(趙榮夏)씨와및 동회역원들에게 기부한금액의 선처를의뢰하엿습니다 나는 항상 체육계에관심을가지고잇스니만치 이방면에 미력이나마 바치려는데지나지안슴니다

假憲兵新京서就縛

强窃盜前科三犯前憲兵補助員

國境을脫出하기까지의經路

시내각경찰의 협아수사를 비웃는듯이 수사진을물코 대담하게도 만주국헌병대우의 제복패검으로 장안서도 한복판인 낙원회관(樂園會館)에 나타나서는 수십명의 여급을아페노코 호령과호사를내리고 술을마시고 호탕히놀다가 유유하게 잠적한문제의 가헌병(假憲兵)박창선(朴昌善)은 그동안 철통가튼경계망을 교묘히버서나서 경성을탈출한것이 판명되여 이에낭패한 경찰에서는 곳곳지에 지명수배를발하고 이래 범인을엄사중이엿는데 십사일에이르러 범인은 멀리 만주국신경(新京)모처에서 체포되엿다한다

어제그상세한 경마를 듯건대 범인박창선은 본적을 황해도옹진군마산면 온천리(甕津郡馬山面溫泉里)에두고 강도, 절도등 전과삼범이나되는 만만치안흔흉물로 이름도전기 박창선이라는 만(朴千萬)、김태근(金泰根)등무려오륙가지나되는 가명을 가지고잇서 전에헌병보조원을 다닌일이 잇섯든것을 기화로 만주국헌병대원으로 차려입고 각처로도라다니면서 만주국 리권운동해준다고 속이고 그운동비라는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해먹은것이라한다

경성헌병대로부터 체포에이르는 경로를보면, 연거퍼이러나는가튼 종류의리권사기(利權詐欺)사건의 진범이전기가헌병 박창선인것을 집작한 동대문서원이 범인이 종로오정목 모처에정부와함께 잠복하고잇다는 정보를듯고 곳그집을포위하엿스나 운이억세인범인은 때마침 외출하고잇서 정부조월례(趙月禮)만 붓잡고 ... 일에 평북정주군이하산십삼번지에서는 만주국향사묘의 동무 김영걸(金永傑)의 집에들엇다가 국경을넘어 만주방면에 도항한 사실이 정주서원에게탐지되어 수사의 주권을 만주에 옮기게되엿던터에 작십사일에 마천내시경에서 붓잡힌것이라한다(사진은범인박창선)

仁川埠頭人夫

盟罷事件解決

今朝부터一齊就業

기보=십사일아침부터 동연동맹파업을 단행한 인천창신조(仁川昌信組)와 영신조(永信組)소속부두인부 약일천오백명은 그뒤 불온한형세를 보이고잇엇더니 인천경찰서에서 주모자들이라인정되는 약사십명을 검거하야 취조를개시하고동시에 파업단부들의 취업에관해서도 조정을한결과 십사일밤십일시에 이르러 파업단은 인천서의 요구대로 십오일아침부터 일제히 취업하엿다고한다

십사일에 인천항구에 입항한 선박은 십사척이엇는데 동일은 파업으로인하야 운반을 못한관계로 하로동안의 손해액이 수만원에 달하엿다한다

色鉛筆

눈아페 노코손쉽게 쓸때는 귀한것도귀한것을모르고 신통한줄을 모르는것이 유정(有情)하다는 인간의버릇이라 ▲날마다 신문한구석에천기예보가 잇슬적엔 맛는니 안맛는니 쩟코까불고 구박이자심터니 ▲예보가 업서지자 비로소아쉬운정이 비할데업는 처지▲그나마 그저낡이 맑을제불라도 하늘이찌푸드ー하면 궁금증도더하야 ▲말업는 하늘을 텀업시 치어다보는대체 비가오려는지 그대로개일는지 ▲날이흐리면 가슴도흐려지는것이 요즈음의인정

上海渡航者들은

虎列剌豫防注射하라

總督府에서關係方面에通牒

부흥하여가는 상해(上海)에서는 호열자(虎列剌)의 박멸에각 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야 예방주사의 철저를 기하고잇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방주사증명서를 가지지안흔 사람에게는 배표를 팔지안키로되엇다。총독부에서는 이뜻을 사입관게방면에 통첩하엿다

盈德、江口兩金組

組合員慰安映畵

【盈德】 경북영덕(盈德)과 강구(江口)양금융조합(兩金融組合)에서는 기회만잇스면 조합원급그가족들을 위안코저 하던바 다행이 금융조합 연합회본부(聯合會本部)에서 위안영화(慰安映畵)로 전선을 순회하던중 당지에 도착하는 기회를 이용하야 지난십이일에는 영덕금조 관내원전동(院前洞)에서 동십삼일에는 강구금조관내 강구항(江口港)에서 일반조합원급 동가족일동을 초대하야 모두 성황리에 종료하엿다고한다

"警察鎭撫로段落"

鎭南浦水源池의暴行事件에對한

警務局 下村保安課長 談

진남포(鎭南浦)수원지확장예정지대의 주민과 경찰과의 대충돌사건에 대하야 총독부경무국하촌보안과장(下村保安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진남포(鎭南浦)의 이번사건은 시국관계로보든지 무엇으로보든지 일대불상사이다 수도저수지확장공사지로편입되는 분묘지대(墳墓地帶)는 연고자들과 협의열중한결과 부에서 비용을내서 이전하기로 결정하야 일단해결이된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십사일오후두시경에 부청측 양반이 출동하야 실지측량을하므로 이것을 본 부근주민들은 미리 각오하얏던 사실은 사실이지만 직접 목도하게되매 다소 감정이 달러저서 측량을 방해하며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난폭한행동을하는등 소동이 이러낫든것이다 그리하야 경찰당국에서는 이것을 진압하기위하야주모자기타 약오십명을 검거하얏다 이번사건은 조금도 계획적이아니고 우연히 발생한사건으로 대개 진정되엿다 검거한오십명과제지하는 경관에게폭행한자 며몃 사람만처벌하고 그나머지는 다 석방할것이다

今日·志願兵訓練所의

歷史的開所式擧行

南總督外官民二百餘名參席

二百二名訓練生의意氣軒昂

전시체제아래 더욱더욱 강조되는 내선일체의선물 륙군특별지원병령(陸軍特別志願兵令)에의한 총독부륙군병지원자훈련소(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에 제일차입소생 이백이명은 부형과 고향의선배지기의 열렬한환송을바드며 십삼일 림시교사인 경성제대법문학부에 전부의 입소를마치고 개소식(開所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

오전열시 식장에는 최씨한군인의 긴운에넘치는 이백이명의 훈련소생이 정렬한가운데 남총독 소기(小磯)군사령관、대야(大野)정무총감、심택(深澤)사단장 조전(篠田)리왕직장관 속수(速水)성대총장 감자(甘蔗)경기도 지사 좌백(佐伯)경성부윤 윤덕영(尹德榮)자작 관내(關內)... 윤치호(尹致昊)한상룡(韓相龍)박영철(朴榮喆)제씨 기타 관민이백여명이 래빈으로참석하고 식단중앙에걸닌 일장기에 대한 일동의경례로 식이시작되여 일본국가합창 ... 소장의식사가잇슨다음 총독으로부터 동양을 동양인의손으로 지키기위한이번성전(聖戰)아래 개소식을맛게된 본훈련소의의의를강조하며 ... 의미의 고사가잇섯고 ... 으로 소기군사령관 ... 지사(十二道知事代表)의축사에이어 육군, 해군 ... 각지로부터의축전피로 황국신민서사 제창으로 식을마추고 곳교정에설치된 야연에옮기여 남총독의 발성으로 『천황폐하만세』를삼창하고 동십일시반 엄숙하고감격한가운데 력사적성전을마치엇다

그리고 D·K에서는 이날의 성의를 전국에 중계방송하야 방방곡곡에서 손곱아 기다리고잇는 훈련소생의 부형 친척 고향선배 지기들에게 획히와감격을새롭게하엿다 (사진은 육군지원병훈련소 개소식광경)

早大와慶應을相對로

全延專覇氣滿滿

十八日午後에第一戰

【東京支局發電】 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는 朝鮮代表全延專蹴球團一行은 監督林炳赫氏引率下에 十四日朝 元氣旺盛한가운데 着京하야 靑山日本靑年館에서 行李를풀고 이날午後에 經練習을實行하엿는데 『컨디슌』은 자못良好하다 十四日午後에 日本蹴球協會에서 發表된 對陣을보면 出場팀은 關西學院(關西)、名古屋高商(東海)、慶應(關東)、早大(關東)、全延專(朝鮮)等五個代表인데 第一回戰에 關學과 名古屋高商이對戰하야 여기서 이긴팀이 準決勝戰에들어가 昨年의覇者慶應과 對戰케되엿고 不戰一勝한 全延專과早大가 對戰하야 이긴팀이 最後決勝戰에 臨하기로되엿다 全延專對早大의게임은 十八日午後二時에 神宮球場에서 行하고 決勝戰은 十九日午後二時에行할터이라한다 初出戰의全延專은 往日을이갈고잇는데 全日本의覇者早大와慶應을 모주리 이겨야 朝鮮을지킬것으로 이곳의豫想으로는 果然을 許치안는다

兩聯盟戰順延 本社後援

... 의中等庭球聯盟戰은 今十五日에行할豫定이던바 降雨로因하야 順延되엿다

中央豫選

蹴協中央支部主催

第一戰에普成快勝

朝鮮蹴球協會中央支部主催의第三回全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中央豫選第一日(兼第廿回全日本中等蹴球選手權朝鮮中央豫選)은 十五日午後十二時四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普成 電機 靑年會學校 培材 東星 中東 養正 協實等의 八個校選手가參加한가운데열리여 式順에따라國旗揭揚 國歌奉唱과 皇國臣民의誓詞齊誦이 잇슨다음 同大會長 金東轍氏의 開會辭가 잇섯고 參加選手一同을代表하야 培材主將 朴大鍾君의 宣誓가잇고 片茂英氏로부터 審判에對한 注意說明이 잇슨後 第一回戰의 普成中學 對 電機學校의 對戰으로 열린바 夕刊마감까지의 各校 戰績은 다음과가티

第一回戰

普成6 電機0

【前3…0、後3…0】

【第一次戰】 普成對電機戰은 同午前一時五分부터 金容植(主審) 金永麟、勝擧鈴(?)(副審)三氏審判아래 普成先蹴으로 열린바 結局六對零으로普成軍이 快勝하엿다

【電機】		【普成】
金義根	GK	李宅寧
鄭然喆	RF	劉永錫
李栄九	LF	朴璋준
金光濂	RH	金成坤
李重煥	CH	張明善
崔承鎭	LH	車炳殷
朴鶴星	RW	金成京
朴承夏	RI	朴尙鎬
劉河鏞	CF	金上福
崔信奎	LI	金主煥
玄昌吉	LW	崔明煥

高專蹴球리그

普專軍連覇

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의 高專蹴球리ー그…普專對醫專戰은昨十四日에 行할豫定이던바 醫專의棄權으로 普專은五勝一不戰勝의全勝率로第一部에連續制覇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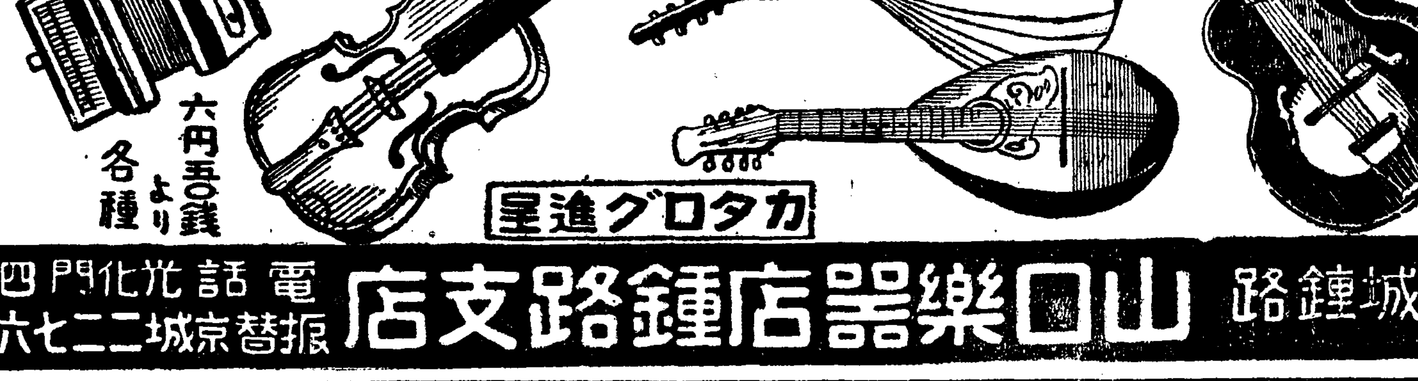
今日의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어린이新聞 高在天
▲六時五五分 講演 金東熹
▲七時 講演 金斗憲
▲八時 講演
▲八時二〇分 라디오常識
▲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八時五五分 西道雜歌 伴奏 金元福 / 崔貞植
▲九時十五分 伽倻琴과大笒 張學仙 金秋月 伽倻琴 韓成基 大笒 朴鍾基 杖鼓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偉人傳
▲六時二五分(城)講演
▲七時二〇分(城)라디오常識
▲七時四〇分(東)講演
▲八時(東)講演
▲八時三〇分(東)物語
▲八時五五分(大)義太夫

手風琴 アヴイオリン マンドリン ギター
四円八〇銭より各種 八円より各種 十円五〇銭より各種 六円五〇銭より各種

地方御註文は前金三割以上申受けます
カタログ進呈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話光化門四八番 振替京城二二七六六番

日ノ丸 オイシイ ビタミン菓子

謹製御用達 キントン メアン本舗 立花製菓株式會社

빅타ー
알녀주서요
黃琴心

1. 이별한당신
2. 저도몰라요
3. 未練의꿈
4. 알녀주세요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府光化門通 電光二四七一番
特許・意匠・商標・新案 辨理士

化學的强力深達殺菌治淋劑
トリパアギン
도리파ー긴
斷然! 萬人好評天下名藥
他治淋藥은全部無効力이라는世評을トリパアギン으로一掃한다 百聞이不如一見이니一次試用
有名醫師間好評使用品
國報康健
七國淋病根滅이急務
効力은淋疾藥中의最高峰!
驚異的藥効
絶對有効 淋病 責任附製劑
治淋藥界의革命兒 最低治療費로 淋疾根治하는トリパアギン
二圓以上記念品進呈
本劑는從來의治淋藥과는絶對性質이特異하야從來의一時的無責任製劑가아니고價格低廉效力最高峯이라發賣以來好評이傳播되여續續注文이殺到하는次第이며治淋藥界에トリパアギン의新出現은今斯界에注目되는藥品이라
◎特性
一、アルカリ性尿中에서도中和殺菌力强함
一、蓄積、胃腸障害其他副作用絶無함
一、臟器에刺戟作用이無함
一、炎症尿道에鎭痛作用이有하여放尿時에疼痛이無함
主治効能 男女急慢性淋病、消渴、膀胱カタール、尿道カタール、睾丸炎、淋毒性關節炎、淋毒性リウマチス、其他一般淋毒疾患
定價 三日分一圓 一週分二圓 三週分三圓五〇錢 病院用十五圓(德用瓶)
製造元 朝鮮新藥合資會社 京城府昌信町六八番地 振替京城一六七五八番

躍進開原紹介版

南滿一의穀庫北背景 産業都市로雄飛
事變以後同胞의移住者激增 教育其他施設도整備

南滿洲의 心臟部라할만한 一望無際한千里沃野의奉天省中央에 大百餘萬平方米의 面積과 三萬餘의 人口를 包擁하고위로는 南東部를 連亘한 大小野山들이 西北方을向하야 고요히 흘너잇스며 北東方에는 水量이 農裕한 淸河와 꽃피운 開原河가 貫流하고잇는 文字그대로 山水가 아름다운 秀麗한 都市——이것이 바로 大豆의名産地로 자못 世評이높은 開原이다.

距今 四五十年前까지만해도 雜草우어진 荒野一隅의 孤寂한寒村에 不過하얏스나 일즉帝政露西亞가 極東經略의 손을펴서 南滿鐵路를 敷設하게 되든때로부터 漸次 都市의一面을 갖추기始作하야 그後 日露大戰의 風雲이 한번 지나가고 南滿洲鐵道株式會社가 設立되며 當社의 附屬地行政機構가 施設되자 急速度의發展을 거듭하야 맛츰내南滿一域에서 有數한今日의 産業的中心都市를形成하게된것이다 如斯한發展의過程에서, 特히東山地方이라는(西豐, 西安, 東豐, 海龍, 淸源, 輝南, 柳河各縣等)大豆其他 各種穀物의 豊饒한大産地를 背後에두고잇는 關門으로서 特産市場으로의 地理的 要衝의 位에 잇기때문에 內鮮滿의 多數한企業家들은 農商民들이 年年 雲集하야 精穀製油 製粉 燒米 酒造業等의 諸般工業이 날로 發興하며 市場 取引이 놀나리만큼 殷盛해오든바 中間에 所謂 奉海鐵道라는 것이 生起면서 當時張家一流의 排日政策的 常套手段의 阻害를 受케되야 多分의打擊을 未免하든때도 잇섯으나 忍苦十年의 苦心力鬪한 効果도 不少하거니와 한번滿洲事變이 惹起되자 어제까지의 모두 不利하던條件이 一掃되야 다시倍前의活氣로 各方面에面目一新의 躍進相을 呈하게되엿든것이다

더구나 市의南北을貫通하는 滿鐵本線은 勿論이오 西豐西安等의 山東地方을 連絡하는 輕便鐵道 開豐線이잇스며 東으로는 奉吉線朝陽鎭, 山城鎭과 西으로는 遼河沿岸의通江口며 西北으로 昌圖縣等其他各重要地를 連結한 六大 自動車線路가잇서서 貨物運輸와 交通上으로도 四通五達의 便이有하며 또한將來에 잇서서 東邊道와熱河方面을 通하는線路의中心地點이 될것으로 매우 重視되는바이고 今春부터는 三井, 三菱等의大財閥이 幾千萬의 巨財를 投하야豆粕工場, 發電所, 製藥會社等을 設置하게되얏스며 管內數處에는 金, 銀, 鐵等의各種鑛山이 發現되여잇슴으로 不遠한 將來에 復興開原의驚異的新面目을나타내리라고 思推되는바이다.

이제 管內鮮人의 生活相을 보면 市內와 管內各處에散在하야 잇는萬餘同胞의 生活相은 가장 慨括的으로나마 簡單히 적어본다면 只今으로부터十年前까지만 해도 數個所의精米業者들 除外하고는모두 朝鮮夕食의 貧窮한 生活을하며 不過 百餘戶의同胞가 市內에 居住하고 잇을뿐이 엿스나 事變以後부터 各處에서 雲集하는 同胞의數는 날로 激增하야 一萬數千戶에 達하는 同時에 淸河와 其支流 兩岸에는 萬餘天地의 水田이 數年동안에 開墾되여 每年 二十萬石의 稻子가 同胞의 손으로 集散케되얏스며 市內全面에 亘하야 一大活況을 呈하는 터이고 産業, 教育 其他 各種 商業機關은 勿論 萬般의 施設이 整然하야 完璧을 이룬感이잇스니 다음의 統計數字가 더 明白히 說明하는 바이거니 와 將來의 發展이 보다더 큰期待를 가지고잇다.

開原城의沿革

開原縣誌의記錄에依하면 開原城은 옛날扶餘의首都로서 일직 宋의代에이르러 遼의太祖에게征服되엿슴때 黃龍府라稱하든바 그後 元의時代로부터 비로소 開原이라고改稱하야 今日에至하는 南滿洲一의古都인데 아직도 處處에 昔日의雄貌를 엿보기에足한 여러가지遺跡이만타

位置及地勢

開原市는 奉天省開原縣地域內의 開原城南方約一邦里半、大連을距하기五〇一粁五、新京의南一九九粁九에位하얏스며 그名稱과如히 廣濶한平原으로서 南東을連亘한大小野山脈이 西北을向하야 展開하얏고 北東方에는 淸河와開原河가貫流하고잇는 一般的으로 地味가肥沃한地帶이므로 農産業에適好하다

面積、人口、戶數

開原市의 總面積은 六、〇七二、六〇二平方米이며 昭和十三年二月末現在의 內鮮滿人別人口及戶數는 如左한바 開原全縣內의 朝鮮人分布狀況과 其他는別項의統計表와갓다

	日本人(朝鮮人)	滿洲人	計
人口	三、三四三(三、三六八)	三九、七三三	四三、三六四
戶數	一、五三三(一、四九八)	五、四四八	六、四四八

氣候

氣候는 所謂大陸的氣候로서 寒暑의差가甚한바 四五月頃에는 南風이몹시불어 黃塵萬丈의觀을 呈하고 녀름의더위는 찌는듯한데 七八月은雨季에는 降雨量이 多하며 一年中九十月이 가장조흔季節이오 結氷期는 十一月初旬으로서 十二、一月의極寒에는 地下五六尺까지 凍結하는바 氣溫은 夏季最高攝氏三九度 冬季最低零下三五度에 達한다.

朝鮮人開墾狀況及그總人口와戶數

總戶數	一、九〇二戶
總人口	九、九四〇人

農場數	二二四個所
耕地面積	九、四四八天地
年收穫高	一三三、〇〇〇石

(昭和十三年一月現在)

滿洲에잇서서의 水田開墾事業은 各各그地方을따라 事情과 … 이제開原地方水田農業經營을 아주概念的으로나마 說明하자면 一天地의面積은 千八百坪이오 그年所出은最下七八石으로 乃至二十二三石을 內外하는바 平均十三四石으로推定하면 適當하며 一石이란 一百三十斤可量인바 百斤에對하야時價는 五圓乃至七圓으로 算定하면된다 이러한一天地의 永賣價格은 百圓乃至三百圓可量이며 年租를하자면 二十圓에서三十圓까지의租料가 普通이고 小作形式은 四、六分法과 半作法이잇다 그리고 農資金融機關은 金融會가잇슴으로 每年貸出高가 二三十萬圓에達하며 特히當地金融會에서는 指導部를設定 婦人部 其他各種各樣의 適切한施設로 農村振興의萬全을期圖하야 農業開原의根本이되여잇다

— 開原朝鮮日報社支局

管內教育機關

學校名	所在地	敎員數	生徒數
開原普通學校	開原市內	一四	五八二
開原城普校	開原城內	一	五四
光明普校	同四安村	一	三〇
英新普校	同汪藤羅東	一	五三
東成普校	同郞家屯	二	五三
東新普校	同榆樹屯	一	三七
崇明普校	同紹皮屯	一	六九
永明普校	同八棵樹	一	四七
彰明普校	同李家台	一	三四
崇正普校	同馬蹄子	一	四〇
明信普校	同四寨子	一	二八
遼東普校	同前施家子	二	八二
三光普校	同馬架窩棚	一	六三
大東普校	同靠山屯	一	五〇
復新普校	同下肥地	一	四六
開原幼稚園	開原市內	二	一三〇
計		一七	一、三一三

上記各學校는 昭和十二年十二月一日의 治外法權撤廢와 同時에 滿洲國으로移管됨에따라 開原普校를除外한 他校는모다 公立鮮民學校로改名되엿다

管內朝鮮人 各種團體及機關

開原金融會 開原朝鮮人青年會 開原朝鮮人國防婦人會 開原朝鮮人基督敎會 開原滿鮮日報社支局 開原朝鮮日報社支局

名勝과古蹟

開原은 無際한平原曠野에位置하야잇는만큼 別로 이럿타할만한 名勝이만은것은안이나 一當百이될수잇는 絶景과古跡이 꼭하나식잇스니 龍潭山과 崇壽古塔이 바로그것이다

龍潭山 = 開原市를距하기約三〇粁地點에잇는 天然的景勝地로서山岳丘陵이環狀形으로起伏하야 七個峰頭가奇妙하게四方을圍繞한 가운데 前淸朝乾隆時代에 建立하얏다는 七峰龍潭寺라는 古色蒼然한 寺刹이잇고 그아페는 여러가지 深奧한神話를가진 二大蓮池가잇는바 詩人과墨客이 陶醉하지안을수업는 絶景으로 每年探勝客이連絡不絶한다

崇壽古塔 = 開原城의 西南一隅에잇는古塔으로서光緖初年의地震으로말미아마塔上으로부터銅版 一個가墜落하얏는데그銅版에『金正隆元年建築』이란文字와官徽大師라는僧侶의 藏骨所라는史實이記錄되여잇스며 距今七百八十餘年前의 建築物이바 高가二十丈이오 十三階段으로되엿는데 周圍에는多數한銅鏡과 西端에는一個의銅鐘가 걸니여잇고 中部에는 十疊의十八羅漢像이 그리여잇는 古史研究上適好의古跡이다

西豐縣의重鎭들

西豐社會主人 大成醫院長 康富達氏

西豐社會의 主人公으로서 內外社交界에 그名聲이 자못 노피 떨치고잇는분이 바로 이康富達氏다 氏는 咸南安邊郡出生으로 일즉 京城醫專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釜山水上署警察醫、總督府醫院小兒科等에 奉職하며 多年臨床의研究를 싸코잇든바 昭和二年度에 渡滿하야 吉林朝鮮民會囑託兼 敎化地方에서 만은活動을하다가 只今부터 八年前에 西豐縣으로 來住케되여 現在大成醫院長兼 朝鮮民會長의 重職에當하야 今日에至하는바 才智와 手腕이 非凡한 當年三十七歲의 靑年紳士로서 縣內五百餘戶同胞의 唯一한指導者임은勿論이오 西豐縣囑託醫、靑年團長等의 公職까지兼하야 꾸준히地方發展에 最善을 다하는분이므로 斷然 一般의信望을 一身에 獨占하고 잇는터이다. (寫眞은 康富達氏)

敏腕의理財家 開原金融會西豐支所 副理事 卓京順氏

氏는 當年三十二歲의 全南寶城郡出生으로서 故鄕에서도 八個星霜이나 金融組合에 勤務하야 實노 斯界에잇서서는 百戰의 經驗을 싸은 勇將이다 昭和十年度에 渡滿하야 奉天金融會 鞍山出張所主任으로 在職할때에는 그任期가 不過一年餘이엿슴에 不拘하고 農場經營、會區域擴張等을 斷行하야 倍前의 發展을 보게되얏스므로 氏가 昨年度에 이西豐金融會理事로 榮轉케되자 鞍山의 社會가 모도 붓잡고 노아주기를 앗기엿스며 西豐의 數千同胞가 손을들어歡迎하엿스니 이한가지事實노만도 넉넉히 氏의 超越한 人格을 엿볼수잇는 바이다 東西안지도 아직日淺하지만 二十有七個所屬務의 四百餘會員을 爲하야 盡力한바가 크며 協和會解本部委員、地方法院調停委員、東山國民兩級農校後援會 顧問等의 公職에까지 就하야 各方面으로 地方의 重鎭的活動을 하는분이다. (寫眞은 卓京順氏)

醫療界의重寶 同仁醫院長 金炅秀氏

氏는 平北定州郡出生으로 일즉 海外에 留學하야 싱가폴라 플스와 大學을나온 분으로서 歐米各國을 遊歷하며 多年研究에全力하던바 昭和八年度에 西豐으로 來住하야 現同仁醫院을 經營케되엿는데 斯學에 研究가 깁흘뿐아니라 非凡한 手腕을 가진 분이므로 工業重職에 當하야 物心兩方으로 貢獻하는바가 크며더욱이 管內一般貧民에게는 無料施療를 斷行하는等 實로 西豐社會에서 社會的聲望을 獨占하고 잇는 當年三十七歲의 有秀한活動家이다

各界人士의面貌

開原社會의元老 三益糧棧 鄭冕極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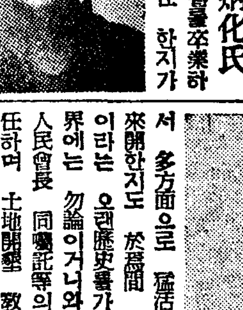
文化開原의建設功臣이오 産業開原의百戰老將이며 內外社會에 唯一의明星格으로 빗나는 분이 곳 이 鄭冕極氏다

氏는 當年四十三歲의中年活動家로서 過去廿年間 끌어넘치는 熱情으로 싸하온 氏의在滿生活이 우리社會에 끼처준 만흔功績이라던가 거기에따르는 갑노픈 名聲이야말로 이미 一般의認定하는바이거니와 氏는 西朝鮮의名港 鎭南浦가故鄕이오 富饒한家庭에태여난 幸福兒이엿다 그리하야 일직十三歲때부터 海外에 留學하야 大阪貿易語學校支那語科를卒業하고 다시 大阪高等工業學校 金分析科를마친後 大正九年에渡滿하야 外務省通譯生으로 奉天其他各地에서 多年官邊에奉職하고잇스며 百萬住民의福利를爲하야 多方面으로남긴 功績이 一二에만止하지아니햇고 그後官職을辭한氏는 大正十二年에 來開하야잇는데 當時의貧窮하고暗黑하던 開原社會가 이熱情的志士의가슴에 얼마나 쓰린늣김을 주엇스랴 氏는 學校를 세우고 靑年會를 組織하는等 文化開原建設의 第一礎를 發射하는 一方 東亞勸業公司에 積極的交涉을開始하야 그出張所를 設置케하고 産業開原의發展을圖謀하기에全心한바 氏의 如斯한不斷의努力은 마츰내 그 効를奏함이컷스며 滿洲事變當時에는 皇軍의討伐部隊에 參加하야 炮灰中에빠진 만흔同胞를救出하엿고 그後朝鮮人民會를創立하고 그副會長의職에잇스며 多端하든그時節의 여러가지地方事業을爲하야 만흔活動을 앗기지안헛슬뿐아니라 靑年會를爲하야도 功勞가 더욱莫大한분이다 現在는 市內에서 三益糧棧을經營하는바 學校父兄會長 地方法院調停委員 日滿特産商聯合會幹事 學校組合協議員 協和會縣本部評議員 開原商業院 …

勤勞教育의本營 開原普校의面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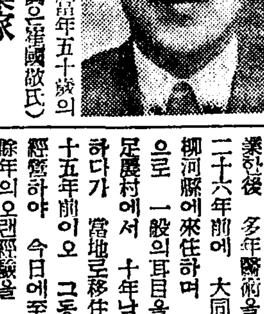
市의東北郊外一角에 巍然한 大殿堂—이것이 바로 勤勞教育의本營으로 우리의唯一한자랑거리인 開原普通學校의雄姿다 이는 大正十三年三月에 在住同胞有志의합으로 支那人의 家屋一棟을 빌어가지고 不過二十餘名의 小數兒童을 收容하야 …

教育界의重鎭 開原普通學校 洪炳化氏



氏는 일즉 平壤高等普校를 卒業하고 當地朝陽學校에 就任하게된것이 바로 昭和四年三月이엿는데 再來 十年의歲月을 一日과가티 育英事業에 獻身하야 오든지 數千의英才를 養成하얏고 新興學校創立, 開原普校學父兄會組織等 實로 教育界에 잇서 氏의功勞는 크다 如斯히 教育家로서의 一面뿐만 아니라 靑年運動, 體育獎勵等에 先驅的役割을하든바 『體育을 通한心身의鍛鍊』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開原青年會의 初代體育部長으로부터 今日에 至하기까지 陸上、庭球等의 開原스포츠界에 嫌存在를 나타내고 잇스며 今番 靑年會機構改造에 伴하야 同會總務部長에 被任되엿스니 一層더 우리 體育開原을爲하야 만흔指導가 잇스리라고 期待된다 (寫眞은洪炳化氏)

開原의功勞者 三山醫院 崔國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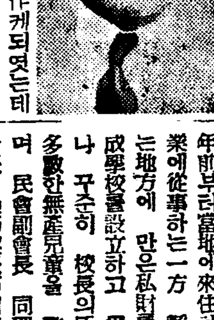


氏는 平北義州郡出生으로 일즉 安東縣同仁醫院附屬醫學校를卒業한後 鐵山郡邑內에서 鐵山醫院을 經營하엿스나 元來先見의明이잇는지라 距今三十餘年前에 … 三山醫院을 經營하는一方 開原檢察廳等의 囑託醫와 地方法院調停委員 協和會城街分會分會長等의 公職에잇스며 滿洲國人側에게까지 信望이 두터운분으로 當年五十歲의 老事業家이다 (寫眞은崔國敬氏)

囑望되는實業家 東興精米所 朴炳浩氏

氏는 只今時代에 드물게보는 眞實朴實한靑年으로서 性格이매우沈着하며 理財에밝은 明晳한頭腦의所有者이다 二十餘年前에 渡滿하야 興京縣地方에서 農業에 從事하다가 距今十四年前에 來開하야 氏의先見의明으로 … 公司에서 土地開墾事業에 着手하야 現在管內에 百餘戶同胞農民을 收容하고잇는 二百餘天地大農場을 開墾하게된것은 오로지 氏의功勞가 莫大한바이니라 아직도 그農場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잇스며 數年前부터 精米業에 投身하야 現在東興精米所를 經營하는바 每年五十餘萬圓의 取引을 하는 盛況을 呈하야 將來가매우 囑望되는 當年 …

青年活動家 西豐公司 尹基曉氏



西豐精米界의 元祖요 또한社會的으로 相當한 地盤을닥고잇서서 猛烈한 活動하는분이 곳 이尹基曉氏이니 氏는 平北博川郡出生으로서 十九年前에 張眞解地方에서 農業에 從事하다가 十五年前에 西豐縣으로 移住한지가 十五年이나 넘은분이다 昭和六年에 비로소 西豐公司를 始作케되엿는데 西豐縣에서 唯一한 飛躍的의發展을보아 現在四十五馬力의 大工場을 設備하고 年年百餘萬圓의 取引을하는 一方 百餘天地의 農場까지 經營하는터이며 民會副會長 學校組合長을 兼任하고 青年團團長 縣商務會參事 協和會朝鮮系分會長等의 公職에 任하야 있다.

信實한事業家 殖産公司 高光俊氏

西豐開拓史上에 가장 오랜 地位를 占하고 農場開墾事業에 가장 만흔 功勞가 있는분은 高光俊氏가 아닌가 氏는 慶北淸道郡出生으로 距今二十有餘年前부터 當地에來住하며 多年農業에 從事하는 一方 學校를 設立하고 開校에以後 前途를 爲하야 꾸준히 敎養하는 一方 私財를 投하야 東成學校를 設立하는等 地方에 만흔 功勞가 잇는분으로 現在는 市內에서 殖産公司를 經營하고 特産貿易商을 兼하는 한편 一百餘天地 큰農場을 經營하야 大大的活動을 하는 當年三十五歲의 有望한事業家이다 物心兩方으로 西豐社會의重鎭的役割을하는 當年三十歲의 靑年活動家이다 (寫眞은 尹基曉氏)

杏林界의長老 開原同春醫院 金齊贊氏

氏는 當年四十八歲의 中年紳士로서 일즉平壤同仁醫學校를 卒業한後 多年醫術을 專攻하다가 二十六年前에 大同郡故鄕을떠나 柳河縣에來住하야 一般의耳目을끌고잇든 知足農村에서 十年남어 만흔活動을 하다가 當地로移住하게된지도 벌서十五年前이오 그동안同春醫院을 經營하야 今日에至하는바 二十餘年의 오랜經驗을 싸흔분이므로 날노 業績이 進展되며 名望이 노픈분이다 (寫眞은金齊贊氏)

健實한人格者 公盛商會 李鍾顥氏

날노 發展하는開原의成長과함께 各界의信望을 享受하고잇는 氏는 일즉 二十六七年前에 慶北迎日郡故鄕을떠나 奉天省遼化縣地方에來住하며 農業에從事하는一方 社會事業에 만흔努力을하든 高潔한人格의所有者로서 開原에移住한지도 於焉二十年이 넘은 古參者이다 請面 東亞商會 東亞精米所等을經營하며 實業界開原에서 가장健實한步武로活 …

開原社會의元勳 開原公司 洪淳亭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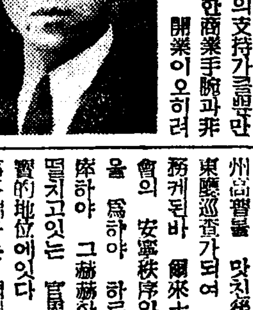
市內長衢街中央通路에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옛날의『아방궁』을聯想케하여주는듯한 宏壯스러운大建物 이것이 곳 産業開原의巨物인開原公司요 그속에서 三十餘名店員과 一百餘名從業員을指揮하며 一百二十五馬力의 大原動機를 돌리며 勿驚 每年二百餘萬圓의 取引을 하고잇는분이잇스니 그가 바로 滿洲精米業界의大王이요 開原社會唯一의元勳인 洪淳亭氏이다 氏는 平北定州出生으로 일즉 東京中央大學經濟科를卒業한後 한때는 鐵山致富를꿈꾸든일도 잇섯스나 不幸히 失敗하고 先見의明이卓越한분이라 벌서二十年前부터 事業에 基礎를닥글곳은 오직滿洲가 잇슬뿐이라는 確信을가지고 大正七年에 이開原으로오기는하엿스나 經濟界에一大波紋을 일으켯든 大正八年이바로 그 이듬해이엿스며 또한奉海鐵道가 생기면서 次次 凋落해가는 開原市場이엿다 氏의모처럼의 여러가지 壯計도 한동안 九曲의 險한길을 밟지안을수업섯지만 百折不屈의 剛直한意志와 非凡한手腕으로 꾸준히 奮鬪한結果마침내 오늘의 大成을 거두게되엿스며 氏는 이러케 實業家로서의 一面을 完成하엿슬뿐만아니라 오히려 社會人으로서의 開原地方을 領導해나아오는 一面이 더 거룩하고 큰분이니 일즉 開原普通學校와 朝鮮人民會가 오로지 氏의힘으로 創立되엿섯고 그 校長과 會長의 任에잇스며 物心兩方으로 만흔 貢獻을 앗기지안흔것은勿論 滿洲事變當時에는 避難民救濟會의 會長의重任에잇서 三千餘避難同胞 救濟事業에 誠意를 다하얏스며 從來萬餘住民에게 苦痛꺼리든 共同墓地를 獨擔하야 墓地基地를 單獨寄贈하는等 一一히 枚擧할수업는 크고 적은여러가지 功績이만커니와 實로 우리開原社會의 萬般은 氏의 힘이 아니밋치고 되는일이 하나도업다하야도 過言이아니다 氏는 只今 五十六歲의 老齡이지만 아직도 一曺의精力으로 一般의信望과 尊敬을 혼자 밧는분이다 (寫眞은 精米工場一部와 洪淳亭氏)

紹介版發刊에對하야

이紹介版을發行하랴는뜻을먹은지는 벌써數年以來이엿스나 諸間여러가지 四圍의事情은좀처럼 이計劃을진작實行하게하지못하엿스므로 只今껏 形勢의推移만을觀望하고잇든바 事情은事情그대로 언제까지든지 終熄될것갓지안키로 旣往樹立하얏든計劃이라 萬難을물리치고 氣껏努力하노라하엿것만 結局처음計劃의半도達치못한듯한感이不無합니다、그러므로 取材의方法에잇서서도 漏落된點이만흘것을 두려워하야말지안습니다、더구나 範圍가一部에만끈치게되여 叱責을未免할것인그點을기피謝過하는 同時에 이微擧가 足히써 寸分만큼이라도 開原地方의事業과人物에 對한認識을새롭게할수잇다면 그것만을千幸으로녁이는바입니다 그리고地方諸賢에게 特別히告하고시픈말은 今後一層더變함업는 指導와鞭撻이잇서주심을바라오며끗드로 이紹介版發行에際하야 直接間接으로 만히努力해주신 여러분에게 衷心으로謝意를表하야마지안습니다

朝鮮日報社開原支局長 崔成武白

印刷業界의一人 協和印刷所 韓燦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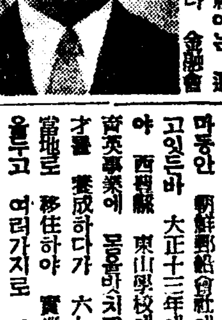


氏는 平北龍川郡出生의 當年二十六歲靑年實業家로서 일즉京城文昌普校를 卒業하고 實邊産業組合에 多年勤務하다가 來開하야 現在의協和印刷所를 經營하는바 純全히 우리손으로된 오직하나뿐인 것이니만치 一般의支持가크며만 아니라 氏의獨特한商業手腕과非常한 活動力으로 開業이오히려 日淺한오늘이지만 그營業이 날노繁昌하야가는中인데 今春에는 工場을 擴張하고 文房具及 原紙販賣까지 兼하는等內容을倍前充實케하야 萬全의 設備를다하얏스며 十餘名職工과 四五名店員이 暫時의 餘暇를 가질수업도록 바쁘다고한다 (寫眞은 韓燦玉)

雜貨商界元老 興信商會 李俊相氏

氏는 忠南洪城郡의 人으로서 來開十四年에 오로지 雜貨商業 信用商會를經營하야 今日에至하는바 當年四十歲의 有秀한商業家이다 氏는 本是鐵山郡出生으로서 渡滿의 歷史도오래고 滿洲人側에까지 相當한信望을 엇고잇는바 營業이年年發展하야 當地雜貨商界에서 唯一의元老이다 … 圓의取引을하는 … 方金融會評議員、學校父兄會幹事等의 公職에 잇서 … 的活動을 하는 … (寫眞은 李俊相氏)

篤實한基督敎信徒 東亞精米所 金雲瑞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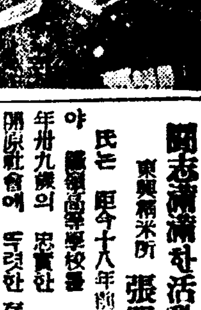


氏는 慶北迎日郡出生으로 일즉 二十五年前에 渡滿하야 柳河縣地方에서 十數年土地開墾事業에從事하다가 當地로移住한지도 十二年이 넘는분인데 篤實한基督教信者로서 開原教會의 重鎭이다 現在 教會의長老와 幼稚園의園長을兼任하고 誠心誠意로 두사업을 經營하야 나가는中이며 今番敎會新築에 鉅額을 醵出하는데에도 三千圓의巨金을 提供하는等 實로 氏의 社會事業方面에 功勞가 크다 氏는 實業方面에도 相當한 手腕을 가지고 現東亞精米所를 經營하는바 三十馬力動力의 完備한工場을設하고 每年數萬圓의 利益을 計上하며 通遼縣에는 支店까지두고 잇다 評議員等의 公職에 當하야 만흔活動을하는 地方의有秀한 當年四十九歲의 中堅紳士이다 (寫眞은 金雲瑞氏)

官界에勤功赫赫 金呂華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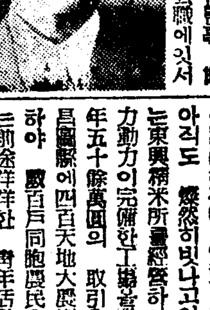
氏는 當年三十四歲의 平北泰川郡出生으로서 昭和二年에 新義州高普를 맞친後 그해五月에 開原警察署에 勤務하게된바 爾來十有餘星霜을 社會의 安寧秩序와 民間의福利增進을 爲하야 하로가티 꾸준하게 奉公하야 그赫赫한功勳을 內外에 떨치고잇는 官界에서 唯一의 重要的地位에 잇다 더욱이 氏가 多事多端하든 滿洲事變을 經하야 昭和八年一月부터 特務警察을 拜命한後로 今日에 至하기까지 滿洲國建國功勞章 勳八等瑞寶章及 從軍記章 滿洲國皇帝訪日記念章等의 名譽로운 褒章을 受하고 昭和十一年九月에는 巡査部長으로 昇進하얏는바 昨年十二月一日治法撤廢에 伴하야는 一躍警尉補(警部補)로 昇次하야 如前히 特務觀察의 要任에 當하고잇스니 이것만으로도 …

敏活한手腕家 大東商會 金鎭學氏



開原社會의 重鎭으로서 才와 智를 兼全한 敏腕家에 當年四十三歲의 金鎭學氏가잇다 氏는 朝鮮의首都 京城이 故鄕이오 일즉 仁川公立商業學校를 卒業한後 朝鮮郵船會社에 勤務하고 잇든바 大正十二年에 渡滿하야 西豐縣 東山學校에서 多年 育英事業에 몸을 바치고 만흔人才를 養成하다가 六七年前부터 當地로 移住하야 實業方面에뜻을두고 여러가지로 크게 活動하얏스며 現在는 貿易商大東商會를 經營하는一方 地方法院調停委員 金融會監事 協和會第二分會長等의 公職에 잇서 … 一般의信望이 매우 厚한분이다 (寫眞은 金鎭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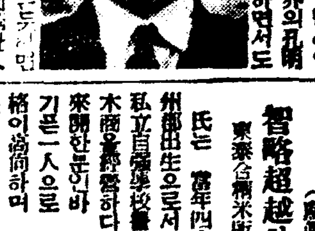
精米界巨頭로모힌 朝鮮商會의偉容



四十五馬力大動力의『엔진』소리는 附近一帶를 振動시키며 二十餘名店員과 一百二十餘名從業員이 눈코뜰새업시 作業하야 每年十餘萬圓의 取引을하고잇는 當地精米業界에 巨物인 市內長春街의『朝鮮商會』—이商會를經營하고잇는 主人公에 斯界의三大巨頭가잇스니 그가 바로 康直壽 金商善 李東燮等三氏다 이제 三氏를 簡單히紹介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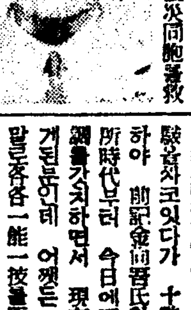
康直壽氏 — 氏는 平北寧邊郡出生으로서 일즉 二十五年前에 渡滿하야 西豐縣에서 多年農業에 從事하다가 來開한지도 벌서十有二年餘이다 무슨일에나 한번 세운方針을 爲하야는 天下가다 떠드러도 吾不關焉의態度로 나아가는 忠直하고 質朴한분이다 特히 滿洲에서 오래生長하엿스니만큼 支那語에 流暢하고 그네의人情과風俗을 잘알음으로 滿洲人側에 까지 信望이 두터워『조선상회』로칭(朝鮮商會老康)이라면 몰으는이가 업스며 氏에 내 只今의同志들로더부러 朝鮮商會를組織經營하는바 不過數年 …

金商善氏 — 氏는 精米界의玉 … 精米業에 從事하다가 … 十二年前에 當地로와서 市內慶福街에서 開安精米所를 經營하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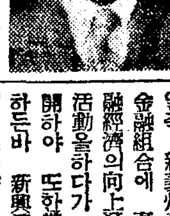
李東燮氏 — … 今日의 成功을 보게된것이니 어쨌든 이세분이야말로 各一能一技를所有한 滿洲實業界의 巨星들이니 … (寫眞 李東燮氏)

鬪志滿滿한活動家 東興精米所 張明煥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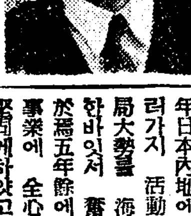
氏는 距今十八年前에 渡滿하야 撫順高等學校를 卒業한 當年卅九歲의 忠實한 活動家로서 開原社會에 뚜렷한 存在를 가지고잇는분이니 일즉 氏가 國際運輸會社와 東亞勸業公司等에 奉職하얏슬때에는 … 當時의 貧窮하든 同胞에게 만흔 便宜를 圖謀하얏고 昭和三年水害當時에는 多數한被災同胞를救濟하얏스며 … 金山組合等의 各團體에서 率先活動하엿스며 東亞日報支局 … 을 設立하는等 實노 氏의功勞는 아직도 燦然히 빗나고잇다 現在는 東興精米所를經營하야 三十馬力動力의 完備한工場을 建設하고 每年五十餘萬圓의 取引을 하는 一方 昌圖縣에 四百天地大農場을 開拓하야 數百戶同胞農民을 指導하는 前途洋洋한 靑年活動家이다 (寫眞은 張明煥氏)

實業界의猛將 同信精米所 景希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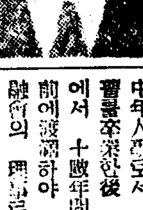
氏는 黃海道殷栗郡出生으로서 일즉 京城徽文校에서 學業을修하다가 … 九年前부터 當地에來住하며 各方面으로 여러가지事業에 만흔活動을하든분이다 現在는 市內景福街에서 同信精米所를經營하야 三十五馬力 動力의完備한 工場을 建設하고 勇 … 金融會評議員等의 公職에 當하는一方 地方發展에도 매우 努力하는 三十九歲의 豪俠한中年活動家이다 (寫眞은 景希澤氏)

滿洲精米界彗星 永昌公司 金正洛氏



氏는 當年三十七歲의 慶北淸道郡出生으로 距今二十數年前부터 渡滿한 滿洲開拓의先驅者로서 西豐縣地方에서 多年農業에從事하다가 昭和二年에 當地로移住하야 一時는 어떤精米所의 店員生活을한적도잇섯지만 原來남다른頭腦와 特別한手腕을가진 活動力이 豊富한氏라 바로五年前에 鄭殷二,吳世喜氏等으로더부러 永昌公司를經營하게된바 新設當時에는 多의難關도 不無하엿스나 氏의勇氣잇는 不斷의努力으로말미아마 數年以來에 順風滿帆의 好調로 그業績이 進展하야 現在는 動力六十五馬力의 大工場을 設備하고 數十名店員과 三百餘名從業員을 驅使하야 每年七十萬圓의 取引을하고잇는 滿洲精米界에 …

醫療界의巨星 三光醫院 尹周源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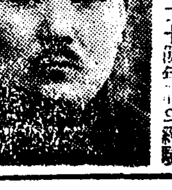


開原醫療界에 唯一의權威요 溫厚篤實한 人格으로 우리社會에 … 尹周源氏가잇다 氏는 慶北高松郡出生으로서 일즉 京城醫專을맛치고 咸北道立醫院에서 多年臨床의研究를 쌋코 距今三年前에 來開하야 現在의三光醫院을 開業한바 그業績이 날노 進展됨은勿論 貧寒한同胞들에게는 無料施療의 犧牲的勞力을 하며 … 其他地方發展事業에 貢獻하는 바가 만타 … 當年三十二歲의 師表的人物로서 當地青年會機構改革에 際하야 會長의重任에까지 當케된바 今後 活動은 더욱 各方面으로注目을 끌고잇는분이다 (寫眞은尹周源氏)

智略超越한實業家 東泰合精米所 李寬熙氏

氏는 當年四十七歲의 平北義州郡出生으로서 鄕里에서 私立百潛學校를卒業한後 多年布木商을 經營하다가 大正六年度에 來開한분인바 開原社會의 歷史의 기픈 一人으로 天品이 剛直하고 人格이 溫厚하며 … 現在는 東泰合精米所를 經營하는 中이니바 … (寫眞은 李寬熙氏)

金融界의老將 開原金融會理事 鄭雲龍氏



氏는 京城出生의 當年四十八歲의 中年人으로서 일직 京城에서 高等普校를卒業한後 黃海道內金融組合에서 十數年間活躍하다가 六年前에 渡滿하야 安東、間島等地金融會의 理事로 在職하든분이며 當開原金融會理事로 轉任된지는 不過一年이나 二十餘年間의 經驗 … 協和會縣本部委員, 地方法院調停委員, 學校組合協議員 … 의 信任이 두터울뿐아니라 … 圓滑化에 期待되는 바가크다 (寫眞은 鄭雲龍氏)

協和運動의曉星 李善圻·白亨澈兩氏

開原社會에서 한쌍의 騏驎처럼 뚜렷한 存在가 되어잇는 우리社會의 두 花形이잇스니 李善圻 白亨澈兩氏가 바로 그분들이다 白亨澈氏는 平北龍川出生으로 일즉 新義州高普를맛치고 多年金融組合에 奉職하면서 農村金融經濟의 向上發展을爲하야 만흔活動을하다가 바로 四年前에 來開하야 또한當地金融會에 奉職하는바 新興滿洲의 時代的要求에 應하야 數千金의 巨財를 投하야 開原認識學院을 創立하고 現在三百餘名 滿洲國人青年子弟에게 日本의文化와 그語學을 普及케하야 日滿兩國의 文化提携에 獻身하는 一方 幼稚園幹事 學校父兄會幹事等의 公職에 잇스며 더욱 靑年會副會長의 重任을 띄고 靑年運動에 盡力하야써 地方發展과 同胞의 社會的 地位向上에 苦心力鬪하는 當年二十六歲의 靑年으로 一般의 期待가 크다 (寫眞은 白亨澈氏) 李善圻氏는 … 多年日本內地에서 … 於焉五年餘에 … 事業에 全心全力하야 그基礎를 堅固케하고 … 靑年運動에 … 리-드하는 … 며 現在는 協和運動에 全心全力하며 協和會縣本部에 奉職하야 … 잇스면서 六尺長身의 巨軀가 … 的活動을하는 … 明皙하고 … 的中堅人物이다 (寫眞은 李善圻氏)

家庭

더조흔자손을 생산키위해서

나라가개언의불행을미리막는것

새로생길優生結婚法

피납분인간은 몰려난다!

부모된사람에게납뿐병이 유전될 잇슬때는그병이자손에게 유전됩니다 이러한 납분병의 전염을 막기위해서 이번 후생성(厚生省)에서 단종법(斷種法)을 만들려고 애쓰는중입니다。

단종법이라함은 납분병을가진사람의결혼을 막거나 혼인해도 자손을나치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거름 더나아가 건강하고 깨끗한 젊은사람들이결혼해서 아주우수한 자손을 나토록 우생결혼법(優生結婚法)을 또한 제정하기에 노력중입니다 이 우생결혼법이라는것은 결혼하려는때는 반드시 양편의건강진단서가 교환되여야한다는것입니다。이것이 이번에 아주법률노 만드러질려고하는것은 이번이처음입니다。이제후생성에서그 취지를 말하는것을 듯기로하시다。

후생성의 뜻은 전국민체력향상에잇는데 그방법은 환경、의복、음식、거처등의 위생과보건을 주로하는 후천적 건강증진법도 필요하거니와 그보다도제일몬저해야할것은 선천적으로부모의 배스속에서 생겨날때벌서조흔 유전을 밧고나도록하자는것입니다。

이러케 납분병의 전염을 막고 또는 더나아가서 보다더조흔 자손을 낫는데는 위선 결혼할때부터 주의가필요하고 이미 결혼한사람이면 특별한 방법을써서라도 나쁜자손은 나치안토록하고 조흔자손만나토록하자는것입니다。

악질의 유전을가진 환자에는 불임(不姙)수술을해서 자손을남기지안토록하는것이 곳 단종법(斷種法)입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단종법을쓰는이보다 차라리 결혼전에 이러한 병자는 결혼하지안는것이 더조흘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점에 주목해서 벌서부터 우생결혼법을실시햇는데 독일、아메리카 토이기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이번법률은 특별한 전염병 즉화류병 결핵 간질 유전적정신병등이잇는 환자—이러한 환자는 다낫기까지 결혼하지못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누구나결혼할 [illegible] 사의 건강진단서가잇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할나이가 되여가지고 이러한 병을가진 사람을 조사해보니 참으로 만핫습니다。화류병에는 일본전국민에잇서 백사람에 열사람은됩니다。그런까닭에 일본의 어린애 사망률이 대단히 만흔것은 대개 매독이 원인이됩니다。

열사람의 한사람은 이화류병을가젓다니 이러한 배우자—남편을 마즌안해의 불행이란말로 말할수업는것입니다。그뿐만 아니라 이병을 가지고 결혼을하면 자손에게 그병독을 전염시켜병신、천치등의 아이를 낫케되니 세상에 무섭고 (?)일이 잇다면 이에서 더한일이 어데잇겟습니까。

결핵(結核)=이결핵병은 젊은사람에게 가장만흔병으로 전일본에서 매년이병으로 죽는사람이 십삼만명이나되고 환자는백수십만명인데 비례로 따지면오십인의 한사람격이되니 참으로 끔찍스러운일이안입니까。

이러한 병자로 만일결혼을하면 병자자신의 증세도 더해가고 또그배우자에게도 전염을식히고 만일 자손이나더라도 대단히 약한 아이를나케됩니다。

이와가튼병 즉결핵환자는치료해서 아조다낫거든 의사의건강진단서를 마타가지고 결혼을해도 조흘것입니다。

그러나 전치될 가망이업는간질병이나 정신병환자는 단종(斷種)하든지 결혼하지안는 수밖게업습니다。

시내

종래에 결혼하는데 인격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가 중요조건이 됫스나 이제브터는 유전문제를 첫재로하지 안으면 안될것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중대한것으로 너가 따지거니와 만일 여자로써 어떠한 질병을 가진사람과 결혼한다면 그의일생이 야말노암흑하기짝이업는것입니다。가튼갑시면 웨건강하고 깨끗한 배우자를 골라 결혼하지안켓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두가지법 즉 단종법과 우생결혼법이 시행되면 무엇보다도 그환자 자신들이 가엽고 또 정식으로 결혼하지못한 내연의 부부가 만허질것인데 이러한 다소의 희생을 취하지안을수가 업는것입니다。

이문제는 아모로 떠맛아연구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날이 그다지멀지 안엇습니다

세간도 습기들탄다

장마철에는 나무로만든 장롱가튼세간은 대개 습기를 끼고 썩합이나 문이바로닷치안습니다 이러한것은 대개 처음 만들때덜마른 나무로 맨들엇기때문입니다。한번습기를 먹은나무는 아모래도 다시 제대로는 되지안코 대개는 뒤틀려서 고약하게되 이 업서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세간에 습기가끼지안토록하는것이 상책이고 바람잘통하는 곳에 노아 둘것입니다。

그리고 이습기 예방엔 늘마른수건으로 닥는것이 첫재방법입니다。작고 문질너 마찰을해 노흐면 습기가잘안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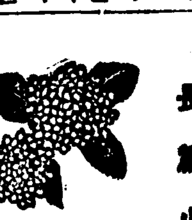
우리차지

푸우마

『푸우마』는 아메리카에서 왕노릇하는 산즘생입니다。소나、말、사슴할것업시 막 잡어먹는 맹수지만 사람은해하지 안는대요 그래서 근처산에『푸우마』가 잇스면 다른 납분즘생이범접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되려 마음을노코지낸답니다。

『푸우마』를 『아메리카라이온』이라고도합니다。크기는표범보다더큰데 창경원동물원에도잇습니다。

(그린사람 검대종)



長篇小說

愚氓 【57】

朴泰遠 作
洪祐伯 畫

長壽山行(九)

『아, 퍽 기다렷지? 식케이식케인』

마침내 최건영이가 제법 얼굴이 벍에가지고 뛰여 와다。

『자꾸 가서 불러오라는걸、가까스루 떼노쿠 오는라구……』

……』

잠깐 말을 끈코 두사람의얼굴을 번갈어 보다가、

『그래、입때 그러케 벙벙히 얼굴만 마주들 보구 섯섯나? 그만 허면 사괴슬테니 얘기라도 재밋게 허지안쿠……』

그리고 그말에 울천이는 불쿤 화수도 약간 얼굴을 붉히는것을 보자 유쾌한듯이 껄껄 웃고는 다시 압장을 서서 걸엇다。

일편 울천과 참말 사괴여서 무슨말이고 하고시펏서도 최의 입에서 먼저 그러한 말이 나온 다음에는 입을 열기가 적지 아니 괴로웟다。그러나 한다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누—하고 생각하여 보니 학수는 별로히 할 이야기도 업슴을 새삼스러히 깨닫엇다。

『김군 이 십이곡 두고 시나 한수 지구료』

한구비 또 돌고 두구비 다시 돌아 갈수록에 꿀착이는길

고 또그욱하데 최는 문득 생[illegible]각난듯이 학수를 도라다 보며 한마디 한다。

『제가 어디 시인입니까?』

『어서 그러지 말구 서 한수 지여서 직석에서 욀퍼보오』

『어떠케 그러케 갑자기 나옵니까?』

학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존원선생의 시조나 한수외워 볼까?』

『누구?』

『존원선생。』

『그래、그것도 조쿠……』

최는 입부러 다시 걸음을멈추엇스나 학수는 그대로 걸어가며 맑은 소리를 노피여 서조를 외운다。

『曹溪 열두고비
어느덧에 들어 온고
水聲 山色이
人間은 아니로다
어즈버 紅塵 煩惱는
꿈이런가 하노라』

『그 참 조흐면 그어가 언제에 와보고 지첫인가?』

『아니조 그 어톤이 쉬엿서에서 아마 지오신지가 올니단

『나는 열두고비라거 꼭 여긴줄만 알엇더니……』

『그래도 장수산 십이곡에다 그대로 옴겨오더라도 겨지 빠는 갓치 안켓습니까』

『그래、그대루 뒷저。어디、또한번……』

도한번 듯고나서 어런엔 자기도 배우겟다고 다시 두자례 세차례를 외우게 한다。

『……수성 산색이 인간경은아니로다。어즈버 어즈버뭐렛지?』

『어즈버 홍진 번뇌는 꿈이런가 하노라。』

『어즈버 홍진 번뇌는 꿈이런가 하노라。꿈이런가 하노라……그러니 신선이 다됏단말이지? 우리도 그러니 별수업시 신선이로구면 그래。』

그리고 문득 누이를 도라보고

『너두 신선이 됏켓? 이기픈 산속에서 이대루 살켓? 어떠냐? 울천아。』

『살어도 조충。』

『아—니 연애두 안허구 시집두 안가구 아들 딸두 안나쿠 그냥 이산속에서 살겟단 말이야?』

『……』

오빠의 시럽는 말에 처녀의 얼골이 왈칵 붉어진다。그러나붉어진것은 울천이의 얼굴만이 아니다。학수도 그 마음에 은근히 부끄러움이 잇섯다。

[illegible] 지금、저도 [illegible]에 울천이와 함께 이 산속에서소박한 살림을 하여보아도 조타고—문득 그러한것을 생각하고 잇섯던것이다。

(나는 그럼 어느틈엔가 울천이에게 사랑을 느낀것이가? ……)

스스로 그러한것을 새로웁게 검토하여 보앗스나 그러면 그래도 조타시픈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잇는것을 학수는 느낀다。

『자—、이제 그만 묘음사로가 볼까? 아마 시간이……』

하고 시게주머니에서 시게를끄내여 보고 최는 중얼거린다。

『어느틈에 네시가 넘엇네。』

『어떠케、여기서 그대로 묘음사를 갈 도리는 업나요? 다시 꽉 온길을 되도라 나가야만 하나?』

『이제 저산을 넘어 재진엇(來菴)을 거처서 갈려면 가지만、길이 험하고、요새는 더구나 수목이 울창해서 안내자가 잇드라도 매우 곤란할께야。징검다리 하나 건느는데두 미끄러지구 야단인데、그 험한데를 올러 가겟서? 괘니 또 찌의 미끄러지구、찌의미끄러지구……』

『웨 미끄러지긴?』

하고 학수는 정색을하여 보앗스나 울천이가 우숨을 참느라고애쓰는 모양을 보고는 자기가 위선 소리를 내여 웃엇다。

樂壇의明星

時日場所

李春子孃洋琴獨奏會

研鑽의길! 渡米압두고告別演奏

六月十七日 午後八時 於公會堂

主催 梨專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普通席 七十錢 學生券 五十錢 指定席 一圓半

梅雨期에 만흔 乳兒의消化不良

特히人工榮養兒는注意

乳幼兒는大人과가티 生活力이强하지안키때문에 氣候의影響을밧기쉽고、特히梅雨期에는消化器의抵抗이衰해서 消化不良에걸리는애기들이激增합니다。

統計에依하면 我國의乳兒死亡率의過半數는泄瀉를하는 消化不良이原因이되여잇는대 그中에도 梅雨期로부터 炎暑에걸처서의死亡率은 斷然他季節보다 만습니다。

이消化不良은 母乳兒이면比較的적게낫는것이 普通이지마는危險한것은 人工榮養兒입니다。이것은牛乳나밀크等의哺育料의缺陷으로오는것인대 即牛乳와밀크는成分이母乳와달라서 애기의體質에充分히 適當치못한故로平常時부터그缺陷이徐徐히애기의健康을侵蝕해서 抵抗力이衰해잇는것입니다。그래서 發病하게되면 重態가됩니다。

直接原因은 젓을過飮하는것이 或은잘못해서 나쁜食物을먹은것等일지라도 그體質이그러케되여잇스므로 發病하면急激히惡化하는것이 普通입니다

그런대 發病하면 到底히素人의 손으로는안되므로 醫師의治療를 밧지안으면안됩니다마는

家庭에서의手當으로서는 于先授乳量을 훨신주리고 젓을어더멕일데가잇스면母乳를 1回나二回를멕이고 梅雨期에는 冷濕하기가 쉬운대 이러한病에걸렷슬때는 一層障碍가만한것이니 각금湯婆를너어서保溫에 充分히注意하고 기저귀가저진것을 오래두지안토록注意해서 자조가라주어야됩니다。

藥은勿論醫師의藥을 먹일것이나그에家庭에서 併用해서조흔것으로는『錠劑わかもと』입니다이것은 一般化學藥劑와는成分이달라서 胃腸의活動을 强케하고消化와吸收의 作用을活潑케하는것을主眼으로한 生物藥으로 그에各種의 消化劑와榮養을補充하는여러가지成分이 添加되여잇는故로 醫師의藥과 併用해도너무强하다던가 副作用이 이러난다던가하는 念慮는업고 오히려醫藥의效果를더하고 恢復을速하게합니다。

藥의殺菌과아울러 榮養이不足함을 補充할수업지마는『錠劑わかもと』에는비타민B를爲始하야 구리고—겐、아미노酸、치스친、리진等의榮養素도豐富히잇서서 榮養을補充하는것도되므로 一擧兩得입니다

만약이것을 平常時에멕여두시면 胃腸의强壯이保全되고 人工榮養의 애기라도 消化不良이防止되고 설령걸린다할지라도 輕하게治癒됩니다

애기들의 젓떼는法

젓떼는法은 最初에는 1日의授乳內에 一回를 授乳兒면 牛乳나重湯으로 牛乳로기르는애면은 重湯1合을주어서 異常이업스면 차차回數를늘리고授乳量을減해서 漸次로離乳食을하게하는것인데 그동안『錠劑わかもと』를먹이면 食餌의變化로오는 消化不良의念慮도除去되고 또 營養素도補給되므로至極順調로운 發育을할수잇습니다。

니다。

[illegible]그대로먹일수업는경우는 [illegible]又는

砂糖 湯에녀흐면 곳쑥거되므로 어린애라도 먹일수잇습니다 맛도조금도나빠지안습니다

[illegible]消化不良의경우에는 [illegible]으로 授乳를制限하므로 消化

虛弱兒童의養護에 「新生物製劑의發見」

文部省의 調査에依하면 我國一千萬의小學兒童中 榮養不良이라고할만한兒童은 約三十九萬人이라고하며 그中一百萬人은 直時救護를要하는危險者라고합니다。

××體質××

最近此等兒童榮養問題로떠들게되야 榮養食을 行하거나 或은榮養劑를먹이는 小學校가만허진것은 참으로기뻐할現象이나그러나經費關係로그것이 普及되지못하고 或은榮養劑의選擇이 適當하지못하던지해서 아직全般的으로 充分한效果를나타내는데까지 이르지못한것은 遺憾입니다

그 一例를들면肝油인대 이것은 비타민A、D의效果를 내려고한것인대 一時肝油의毒性이라는것이 議會에問題가되엿섯는대 그것은어쨋든 이것을먹이는兒童의 適不適이라는것에는 充分히愼重한考慮를해주셔야합니다

비타민A의效果는 細菌의感染에對한 抵抗力을增加한다고하는대 그意味로肝油는

××結核×× 의豫防、或은結核患者의榮養劑로서 그前부터使用되는것입니다虛弱兒童中에는 潛伏性의結核과結核素質者가잇스므로 그러한兒童에는 肝油도適當하지마는其他消化機能의衰弱과 榮養不足으로오는虛弱兒童等에는 決코適當하다고는할수업습니다

이런意味로보면 一般虛弱兒童에게나어떤데써도 適當한것은『錠劑わかもと』입니다 이것은特殊한藥用微生物—酵菌을 基礎로한生物製劑로서 비타민B의가장濃厚한것을 爲始하야 筋肉의發育骨格의 發育에 必要한成分腦神經의 榮養이되는 成分等을含有하고 更히胃腸의 機能을 活潑케하고 食慾을 增進하며 消化吸收를 旺盛케하는 各種의酵素와호르몬性物質까지도 併有해잇는故로 첫재로 消化器가 弱한兒童—

××便通×× 이順調롭지못하다든가 滯하기쉽다든가하는 兒童게에는 대단히適當하며 特히비타민B가 濃厚함은日本人에 가장만흔 白米食과砂糖의 過食으로 原因하는健康의障碍를 防止할뿐아니라 最近의研究에 依하면 結核을誘發하는大原因이 亦是비타민B의不足이라고하고잇스므로 結核體質의 兒童에도 亦是至極適當한것입니다

右의『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廿五日分一圓六十錢分八十三日分五圓의 一日數錢으로되는廉價로 發賣되고잇습니다

脚氣에걸렷스나 生來에藥을실혀해서

(福岡縣八幡市仲町) 藤木正彦

나는今年二十一歲되는 男子인대兒孩때부터 注射와藥을실혀서困難을밧고잇든바 昨年여름부터脚氣에걸리고 아침出勤에도다리가무겁고、事務를보는대도 根氣가업고게다가 食慾도업서서정말괴롭게한달을繼續햇습니다。그러나아모리도낫지안코 점점더해감으로 醫師의診察을바드니 脚氣라고해서 스스로 놀랏습니다。그뒤날마다病院에다녓스나 每日注射하는것과藥먹는것이 실혀서結局病院出入도그만두엇습니다。

父母의게꾸지람도 들엇스나아모래도다니기가 실혀습니다。그러대어떤동무가『錠劑わかもと』는먹기도쉽고脚氣에도 조타고하므로 처음으로한甁사서 먹기 始作햇습니다。服用하는동안食慾도나고 一個月째부터는出勤도便하게되고根氣도나서 本來의健康體로 回復되엇습니다。只今도服用을 繼續하고잇는대胃腸도조아지고 每日元氣가잇습니다。이것도 全혀良藥『錠劑わかもと』의 德澤이라고感謝하고 잇습니다。

ウテナ クレンジング クリーム

우테나크림

初夏는…… 完全한洗顔에서!!

初夏는 皮脂의 分泌이旺盛해지고 空氣中에塵埃가만키때문에 洗顔이完全치못하면 살결이더러지고거치러집니다—

石鹸以上の清掃力

ウテナクレンジング는 살결의 深部에滲透해서 石鹸으로도 지지안는 毛穴이나氣孔中의때、몬지惡質脂肪까지도 吸收해서 매끈하고 健康한젊은살결을 만들고여드름 부름의 原因을解消합니다

使用法が至極簡單

크림을 바르고까—제나脫脂綿으로 써서버리는것만으로湯水를쓰지안코 어떠한 濃化粧이라도薄皮를 벗기는 것과가치淸掃하고 獨自의 美肌作用으로皮脂의分泌을 調整합니다

★洗顔・化粧지음에……
★外出・旅行에……

株式會社・久保政吉商店

13.6—3.8

鄕土文化를찾아서
香積山陽和寺 (七)
李昇圭
泰川行

建物=寺의最古建物은 冥府殿인데 距今九百四十七年에探密宏演兩國師가 再建한建物에屬하는것이라한다 이제그當時의建物로 寂光殿、[illegible]等이 다ー古色이蒼然하야 古建物이라認定치아니할수업다。

그다음으로 解脫門과天王門=約四百年前建物이오 그外에大雄殿、藥師殿、華香閣、祝聖殿等은다近古의建物이다。

沿革=新羅景文王十一年에(距今千六十七年前) 道詵國師가宜州普光寺로부터 香積山에來하야 叢中으로부터 寺址를發見하야 此寺를 創建하엿다 그러나其時에는 一小庵에지나지못하든것인대 高麗成宗十一年에(距今九百四十七年前)探密宏演兩國師가 擴張한것이다 李朝[illegible]妙香山普賢寺의末寺로 그規模의宏傑한것은 밋지못하나 [illegible]한것은 또리여 普賢寺를壓倒하게되엿다 그後壬辰亂에 [illegible]國師가 僧數十(?)宗으로 八道都摠攝이되어 壽上에서 勅命을맛들고 此寺에來住하엿섯다 그뒤로부터는 兵火의 刧을여러번지나서 建物이만히燒失됨으로 冥府殿以外에는 그때[illegible]을 차질수업고 [illegible]에는 大[illegible]지내여 얼마동안에는 一人도 住持케 못하게되엿다 그러므로 寺의 古蹟遺物들은 다 蕩然無存하게 되야서 甚至於 [illegible]數人의 古蹟保存까지 어데로갓는지 차질수업게되엿다 더구나 僧侶中에 명주黨이라는 一[illegible]가 생겨서 此寺를占據하야 [illegible]한 作惡을하므로 거의廢止될地境에 이르렷섯다

명주黨은 何年何時부터成立된것은 的確히모르나 大槪三十年前後에생긴 [illegible]이다 그들이 佛家의腐敗를革新하라함인지 또는時代的不平이잇서그러한지 仔細히알수는업스나 目的은殺人强盜이다 그러므로 寺刹中에도 深僻한곳 또는 僧侶가比較的少數인곳을 차저서 强制的으로 占領하야 外樣은僧侶를 假裝하고 內部에는卒徒를 派遣하야 殺人强盜의行爲를無難히敢行하게되얏다 그러나 [illegible]으로 그들의行色이 [illegible]게 [illegible]치아니하고 또는그들의[illegible]以外의僧侶가 [illegible]가잇스면 [illegible]여서 [illegible]시켜 바리다 [illegible] 各處에[illegible]가잇섯든것이대 寺刹[illegible]正으로因하야 그들의[illegible]이업서 自然[illegible]말엇다한다 陽和寺도 一時그들의 占據한바되야서 正當한 僧侶는 다ー[illegible]寶寺로 [illegible]하엿다 이로因하야 古蹟遺物은 [illegible]者가업다한다(主持[illegible]談을[illegible]取함)

어느時代 어느곳을 勿論하고 殺人强盜가 [illegible]것이 어지안타[illegible]中에서 이러한 怪[illegible]生되엇다는것은 吾人의 想像不到의일이다 엇지 可惜지아니하겟는가

古物石槽

[illegible]人의 陽和寺古蹟記를[illegible] 『[illegible]四佛像入[illegible]山水[illegible]之異此其佛家[illegible]用中[illegible]者也』云云

나는 [illegible] 차저가본즉 天王門前 小井邊에잇는데 一[illegible]石으로된 石槽이다 長이一尺이다 그容量은 米二石이다 [illegible] 廣이五尺이오 어大尺八分이오 [illegible] 古蹟記에는 [illegible]容納한다하엿스니 이로미루어보면 佛家의 [illegible]을 [illegible] 信用할수업다

名物銀杏樹

植物中에 銀杏樹는 가장壽木이라한다 그러나 그元幹이 全部[illegible] 保護皮가업고 能히 生命을 保全한다는것은 植物學上에 한 研究거리로되야잇다 陽和寺의 銀杏樹는 探密國師의 手植이라하는데 九百餘年의 風霜을 겪거왓다 그元幹의周圍는 二十六尺의巨木이오 [illegible]이고잇다 그러나그元幹의[illegible]에 保護皮가 全部脫落하야 一個白骨으로 서잇기를 [illegible] 다 누구든지 [illegible] 나무가生命을[illegible]것이다 그러나이銀杏木은 [illegible]外皮로 今日까지生命을維持하야 [illegible] 나무가속이비엿는데 그속을[illegible]細히보면 [illegible]나간것을 發見하엿다 나는그제야비롯오 [illegible]皮가水分을吸收하야 各枝葉에올나가서그의生命을維持하게된것이다 그러나그나무를外樣으로一見하는사람은 누구든지異常히녀기지아니하리업슬것이다

文化의一般性과特殊性
普遍的인文化와特殊的인文化 (一)
金基錫

現代의文化는 現代의 現實과함께 한개심한 混亂속에 빠젓습니다。現代에잇서서의 文化의位置는 이제 단순히『文化』의問題로서만이 아니고『現實』의問題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文化는 아시다시피 生活의表現으로서의 意味를 가집니다。그런데 이 生活의表現으로서의文化란 어떤것이겟습니까。文化는 본래 自然에대한 文化로서 自然으로부터 自己를 구별해야합니다。우리들은 文化라고할때 흔히 學術、道德、藝術을 들거니와 廣義의文化는 여기에그치는것이아니고 이른바 精神文化와함께 慣習、經濟、法律、政治같은것들을 모두 包括하게됩니다。이리하야 自然의秩序에 마조서는 文化의秩序가 成立도되기에 이릅니다。

自然아닌것으로서 歷史란게잇지안습니까。歷史가 自然으로부터 自己를구별하는 性格을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歷史는 文化에잇서서 文化를 가지는데잇서서

自己를 自然으로부터 구별된다고 말하자면 歷史는 文化的歷史이고 文化는歷史的文化이겟습니다。

文化가歷史이고 歷史가文化라니 말이되냐。文化는觀念이고 歷史는現實이거든。文化는 現實에依하야 規定되는 觀念形態어든。

—누가 금시 이러케 나무라실지도 모릅니다。우리들은 여기에서 例의 規定被規定의 關係를 따지려는것이 아니거니와 文化가觀念이냐 現實이냐 또는 觀念이면서 따로잇고 現實이란게 따로잇느냐라는 저 새로운『스코라哲學問題』를 그대로 담지재 文化의 主體에대한 根本認識을 反省해드려가려고 합니다。

文化는 먼저 自然으로부터구별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自然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무엇을 意味하는것이겟습니까。

自然과 구별된다고해서 時間을 넘어선다는것은 물론 아니겟습니다。時間的인것에잇서서 自然이거나 自然아닌 文化또는 歷史이거나 다 變해가는것이 잇겟습니까。그러나 自然으로부터 구별되는 무엇이 잇서야합니다。自然에마주서고 自然에대하드는 말하자면 무단히 自然을 否定하는무엇이 잇서야합니다。自然에마주서는秩序가 업는한에서 自然마저 아직 自己를 한개現實的인 秩序로 構成함이 업기때문입니다。

人間은 自然에대하야 自己를 主體的인것으로 限定합니다。文化는 人間의 이主體性을 表現하지아니서는안됩니다。

그런데 이主體가 된다는것이 곳 文化를 가진다는것이되고文化를 가진다는것이 곳 主體가 된다는것이 겟습니다。自然에대한人間을 흔히 歷史的存在라고들하지만은 어떤歷史的存在는 워낙 文化的存在를 가르치는것이어되어야합니다。어떠므로 文化에잇서서의 普遍性과 特殊性은 곳 主體로서의 人間의 普遍性 特殊性에서 오는것인데 지나지안습니다。

文學과映畫
그實踐인『圖生錄』評 (1)
蔡萬植

만흔 興味와企待를 가지고서 柳致眞氏의 씨나리오『圖生錄』을 읽어보앗다。만흔興味와企待의 理由는 昨今 朝鮮에잇서서도 映畫라는것이新興藝術로써의 本格的인 飛躍의體勢를 보임을따라 一般文學人들의 거기에對한 關心이나 态向이 注目되는 時期인때문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을하면 우리는 서방 文學과 映畫와의 交涉에關하여 여러가지問題에 當面을 해서잇다—가령 映畫가지는 文學的要素의새로운 檢索이라던지 文學의個性과 映畫의性格과의 比較研究라던지 文學이 映畫에依해서 獲得할 그의 第二次價値의 相貌와 그評價라던지 또 이미 前哨的으로 써ー내리슴에 오른내리고잇는 씨나리오乃至 오리지날씨나리오(或曰 映畫小說)의 方法論이며 그誕生을 마저디릴 文壇의 座席問題라던지…。

이러한 問題들을 우리는 바야흐로 正當히 規定해야할터이요 그러하므로써 文學이文學獨自의 個性과프라이드를 抹殺하거나傷하는일이업시、指導的인立場에서서 映畫와의交涉을 悠悠히 行動할 基準과原則을가저야만할것이다。흔히文學과映畫와의 交涉을無條件으로 拒否하는써트른이高踏主義며、反對로映畫에依한 第二次的價値를 文學 本來의價値와 混同、過大評價한 남어지 文學을 自殺하면서까지 映畫에 아첨하려는 妄說이 問題 눈에띄이는것도 한便으로는 文學이게잘바 行動의基準이 서지못한 때문이 아닌가한다

이러듯 問題가 提起되엇을뿐 理論의規定이 아직 되여잇지안흔 이때를라서 突然그리고 맨 처음으로 씨나리오『圖生錄』이 한개의 實證으로써 理論의前面에 뚜렷이登場을했다。作者는 柳致眞氏、現文壇의 中堅의 한사람이요 떠욱이 小說에比하면 映畫와는 더멀리 가까운 劇文學乃至 舞臺實地에잇서서 相當한 地盤을 가진 그柳致眞氏다。

여기에 文學의 映畫에對한實踐으로써의 先鋒將『圖生錄』의 問題과 實踐이잇는것이고 따라서『圖生錄』은 柳致眞氏個人의 作品이同時에 時代가 時代요 問題과實踐이 놓인한만큼 一方으로는 文學全體를代表하여 映畫『國』에 派遣된 節使라고도 볼수가잇는것이다

허기야 斈石가튼이는 오랜前에(鍛表錄中 中斷은 되엇지만)長篇의 씨나리오를 쓴일도 잇섯고 某紙에서는映畫小說이란것을 公募하여 新人中으로부터 한개의 作品을 엇은일도 하였고 하기는했스나 그것은 時期와 實錄으로보아 이번 柳致眞氏의『圖生錄』과 가튼 때이지에 놓인노코가른것으로 價値評價를 할性質의것이아니다

그리고 萬若『圖生錄』도柳致眞氏의 作品은 作品이더래도 그가 어느 映畫製作人의注文을맛고 映畫臺本을 提供한데 근친것이라면 그것은 決코어자리에서와 가튼價値評價의對象이 되지안흘것이다 안흘뿐아니라 나는 世上과 함께지 또 柳致眞氏가 그러한 映畫臺本을 만들엇다는것조차 알지못햇슬것이다

그러니까 僕는『圖生錄』에 對해 [illegible] 映畫臺本이 되게는지 어엇지는 흥미로도 그가 한개의 文學으로써 活字에依하여 紙上에 發表되엇다는데 決定的『[illegible]』이 잇는것이다 또 柳致眞氏 自身도 그것을 文學作品으로또 定하는 態度를 가지고서 活字化를 시겻슴에 틀림이 업슬것이고…

以上과가티 文學의 映畫에對한 實踐으로써의 『圖生錄』[illegible]의 先鋒將『圖生錄』을 일이이다)나는 만흔 興味와 企待를 가지고서 讀하는 外에 다시 다른한가지의 理由로해서 나의企待는 더욱더緊張이되엇섯다。即 今年正月柳致眞氏는 레아리즘을 옹면서 抉別을햇다。레아리즘을 抉別한 柳致眞氏는 그뒤의 첫作品으로서『圖生錄』에서 그의새로운 體得한바『文學하는態度』를 보여줄것이分明하다。한사람의 [illegible]作家가 旣往의 모ー랄(態度)을 意識的으로 破棄햇슬때 그作家의 그뒤의態度를 注目하는것을 노상하 個人의인 興味의所致만은 아닐것이다。

科學隨筆 微菌小話 (一)
東京理硏 李相泰

和蘭人레ー벤후ー크(Leeuwenhoeck)氏가 一六七五年에『렌스』(Lens)를 發明한後 微生物에 關한 研究가 長足의 進展을 보아 現今에 잇서서는 自然發生說(Abiogenesis)을 信하는 學者는 업서젓스나 微生物이 發見된 當時에는 自然 發生論者와 反對者間에 猛烈한 論爭이 일어낫섯스며 이 學者中에는 自己의 假說을 主張하기 爲하야 學的眞理把握의 良心까지 일케된 非學徒的人物까지 만히 輩出하게되엿다。特히『파스토ー르』(Pasteur)氏가 腐敗酒에 關하야 研究한結果 腐敗의原因은 微生物의 作用에 因하야 乳酸醱酵는 微生物이 生活한 까닭이라고斷言하엿고 微生物은 自然的으로 發生하는것이아니고 必然的으로 空氣中에잇는 微生物이 侵入한 까닭이다라는 發表를하엿다。當時의 學者들은 此說에 反對하엿다。特히 基督敎信者인 學者와 僧侶들은 猛烈과 迫害까지 加하엿다。그러나 學問을爲하야 最後까지 實驗과 研究를 멈지안코 努力한 結果 『파스토ー르』氏에게 最後의勝利는 도라가고 말엇다。科學의 研究에 家庭的迷信이 妨害를 한例는 古今을 通하야 許多하며 甚하게는 學徒의 一身上에까지 迫害를 끼친일이만타。萬若 宗敎的 解釋이 眞理라면 科學과 科學徒는 人類社會에서 無用之物이 되고말것이다。그結果는 어떠케되겟느냐。

微生物의 自然發生說을『파스토ー르』氏가 打破하엿다고하겟스나 이勝利를 엇게되기까지에 到達케한 先進學者의 努力은 적지아랏다。伊太利의『스파란쎄인』(Spallanzain)氏는 一七六九年에 물을 加熱殺菌하면 生物이 發生치 안는것을 證明하엿스나 不幸히 生物이 發生하는때도 잇섯다。이點에잇서서 反對者의 反駁을 밧게되엿스나『파스토ー르』氏가 一八六五年에 細菌의 芽胞(Sporen)를 發見하야 芽胞는 強大한 抵抗力을 가저서攝氏百度에서는 死滅치안코 百度一百十二度의 高壓殺菌을 하여야 完全히 死滅하는것을 證明하야 完全히 自然發生說을敗北시켜다 佛國의『다배인』(Davoine)氏는 一八五〇年에 動物實驗에서 家畜에 重大한 關係를가진 炭疽菌(Anthrax)을發見하고後에『코호』氏가 炭疽菌을 證明하엿다。英國의『리스타ー』(Litser)氏는 細菌의 消毒法을 發見하엿고特히『코호』氏는『푸로이센』(Preussen)의 一僻村에서 一個의 開業醫로 生活을 겨우維持하면서 內助의功과 偉大한 賢夫人의 助力으로 細菌研究에沒頭하야 一八八一年에 固形培地養法을 어서 細菌의純粹培養(Reinkultur)을 하야 細菌學研究에 一大光明을 던저노케되엿다。

이와가티 눈물겨운 學者의 犧牲的平순한 努力은 人類의幸福을 爲하야 一貫하야 뒤를이어 繼續되고잇다。米國에서 苦鬪한 野口英世氏의 一生도 細菌學을爲하야犧牲한 貴重한犧牲이다。

古今을 通하야 學海에 몸을던진 學徒는 勿論이요 또한學에뜻하는學究的靑年은 누구나生活과 家庭의 重壓으로 社會的立場에잇서서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不利하며 一生을 通하야 安逸한 生活을 한사람이 殆無하엿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다。無爲徒食하야 遊逸歲月을일삼고 享樂的利己主義로 나가는무리의한번더自省할바이며 門閥을 云云하며 一門의 盛衰를論하야祖先을 誇示하여他人에게優越함을 가지고잇는 人士의 反省할바이다

小品 『層』 (一)
玄德

일상 차저오든 거지 어러게집이가 얼굴을 보혀저 안는다고 뚜여 안하게 여기거나 할세라흔 업다。다만 言은 안잡재기가하루 부어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밀린 찬밥덩이를 보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자기가 먹어치우지 아니하면 아니될 실미죽한 장과 함께 그는 문득 거지 계집아이가 머리에 올라여메서 약랑관에 부채질을 하고안젓는 주인 아가씨를향해 입을 여렷다。

『요센 그 거지애이넌 올통수업스니 웬일예요』

『누구말인가』

『왜 놓오는 사람두커 계지아이 말인순』

『어디루 이살 간게진』

『이산, 시골서 살수업서어리루 와다든데 또 가요』

『그럼 죽으게지 그게 어디 성헌 애든가 벼엇든애징』

그리고 주인 아가씨는 가슴이 선뜻하는 아니날 생각이 낫다。거지 게집아이에 대한 불길한 예측에어여 그는 지금 다리고 잇는 약의 일자인 자근아들의 병이 심상치 안허 흑하팔이 무심해 저희다 어찌지나 안흘가 하는 방정마즌 생각이 낫다 그러나 주선 아가씨는 그것을 저의비틀어논뜻이 부채질하든 손에 힘을 주어제 빨리 놀리엿다。

○

제 작은편이 떼밥소 곡수를 바찬가지 가륜 가게자 느려는 조출한 거리에서 기름집 여로로 공손한아를 드려서 가듯이 달린하다든집 조고만 밥녹개가 엇든지은 게집아이 거지를 보고도 게가것지를 안케들되엇다

바득게 눈에 그지저구에 한사람으로 보이리만큼 고게집아이는 하루한번은 차자와 크고 좋은 그리고사굴드기인 적한 눈이 총은 설주에서 머리만 내노코서서 알을 드려다보다 무엇 요구하는일도 업고 중문 설주에서 한발도 더는 드려놓아지도 안코 언제든지 그러케 말업시 보기만하고섯는 게집아이에게 정한사람이라도 차차 싱상이어기게되엿다

흑 좋은 안잡재기가 보고 부어에서 찬밥그릇을치드려보이며 숫짓을 해 불려도 게집아이는 그 섯는 자리에서 몸직이려지 안는다。

『너 쳐먹던이냐。드러와가저가래두 찬밥얀』

그러나 소녀는 다만 나즐 붉키고 주뼛주뼛할뿐

『왜 개가 무서워 그러니 물지안는단』

그래도 소녀는 부엌파 안방편을 번가라 바라보며 더욱 수집어듯 나갈 뿐이것이다。

『그애보게。너 누구 내워히는 사람이냐 내우허는애가 어떠케 남우집으로 구걸을 다니니』

하고 言은 식모는 쑥스럽게 여겨는것이나 그러나소녀는 이점에 한해서만 천참 할멍어를 원하지 안엇다

소녀가 어전에 오든때면 반드시 앰빙이다지가 열리며 톡수롭한 머리 하야케 쎈 얼굴이 나타나 문제방에 허울을 걸고 소녀를 내다본다。

더벅머리도령의 그눈은 소녀자신과가리 훼한 마치소떼가 해 점을여게 지처몸으로 집을 향해 도라가면서 지나간날의 어머니를생각할때처럼 그러케 까라안고 술쓸한 눈으로 어느때까지나 물러지안코 바라본다

소녀는 그가 보는 아페서는 제 남누한 주제를보어기 실혀고 더욱이 다리절름바리인 그꼴을 보이기꺼리엿고 그리고 적난 색씨가 사나이를 대할때 늣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버루소 깨닷는것이다。

樂土童女의藝術的堅戰
第二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九月中旬……申請期日……九月五日

曲 目……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 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Impromptu (即興曲) No. 4 (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Concerto (協奏曲) No. 6 (E Flat) 一樂章=로ー데

【譜 表】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一旦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 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審査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女性 七月號 今日發賣 大好評!!

★女子여强하라∞ 李萬珪
★여름과誘惑∞ 李相昊
반찬研究 許永淳
夏節病 李先根
商店經營 梁基哲
스승말슴 各界諸氏
家庭風景 探訪記者
表情알범 朴洪浩 撮影
經濟對策 主婦諸氏
★還鄕하는스트피아니 李愛內 金海棠
★그리운山岳·그리운바다 文壇諸家

★號號마다더욱계미스런女性誌!!現代女性의唯一한伴侶!!大好評!!大賞讀★
(特輯) 職場女性들의抗議書
金仁淑 梁玉順 張明熙 李達童 尹喜淑 李淑子
어머니讀本 家庭電氣學 李達男 兪莞昌
主婦手帖 女性母性備忘錄 女性界消息
女流事業家列傳 教育奉仕卅年 車美理士女史
令女書簡集 언니에게……李軒求 여행가자고……金南天 海金剛에서……李善熙 어머니젼에……崔貞熙 오라버니께……金文輯 聖姬에게……李石薰 어머니께……盧天命 생일전지……白鐵
◇위로……金岸曙 ◇薔薇와가티……李時雨 ◇차돌을쥐고……吳時泳 ◇東海點描……鄭玄雄 ◇生理學問答……柴雲英 ◇郊外救急法……編輯室
愛兒命名集 李順玉 崔善福 徐芝淳 宋在淑
名作로맨쓰(佛蘭西篇) 名作映畫『舞踊會手帖』
七夕夜話 李軒求 斜陽子 車相瓚
特別記事 小說讀本 李泰俊
小說 竹馬之友 朱耀燮
野談 青鳥 申鼎言
小說 쑥국새 蔡萬植
小說 世紀의花紋 金南天
★定價二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

淋病이면 리베ー루
리베ー루의特徵
危險한療法은避하라
各藥店에잇습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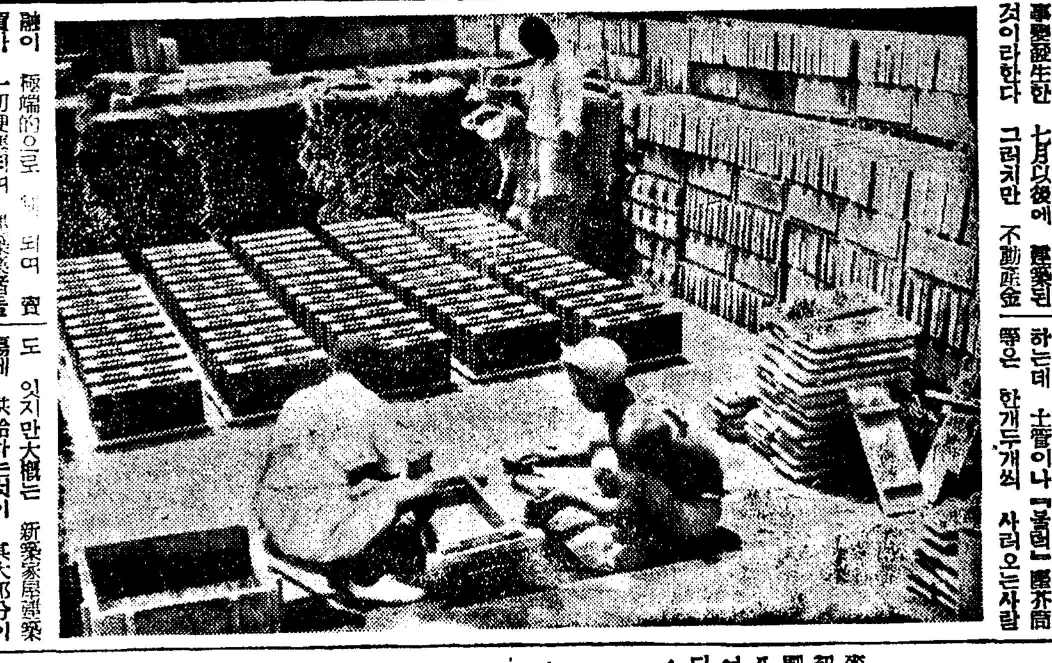
부음에 세ー킨
各藥店에잇습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⑬

建築不振으로 콩크리트業閑散

比前年賣上高三分一減少

農村振興에 努力코잇는터이나 農土를버리고 貴重한勞働者로都市의 近代的大工業을向하야 都市로都市로 集中하는數도不少한增加하야 京畿道保安課集計調査에依한 京城의 十二年末總戶數는十一年에比하야 七千八百二戶가增加하엿고 人口는 三萬四千七百八十五人의 大增加를보이고잇다 그러데 新築家屋數는 十八戶의減少로 住宅難은 去益激甚할으로 最近은 府營住宅을 建築하고 一般俸給生活者들의 便宜를圖謀하야 住宅難을 緩和시키려는 計畫도 樹立하고잇는터이다 新築戶數에잇서서는 十一年보다 十二年이減少하기는하엿지만 十二年新築戶數의 約七割이 事變發生한 七月以後에 建築된것이라한다 그러치만 不動産金融이 極端的으로 ○○되며 資材가 一切梗塞되며 建築業者들은 머리를알코잇스며 最近은또 鐵鋼物使用制限、建築材料의 暴騰等으로因하야 建築途中에잇는 建物들도 工事의 中止狀態에잇는것이 적지안흔모양이다 이러한 現狀아래에서는 建築材料商은 모두同一한 苦痛을 맛보고잇슬것이나 其中에도 小資本을 가지고經營하는『콩크리트』工業所가튼곳은 더욱 甚하다고한다 그것도 競爭者나 적어서 相當한값을밧고 팔게나되면 이모저모로 補充해나아갈것이나 京城市內에만해도大小를 合하면 大十餘個所요 各地方에 無數하다고할만한것도 二十餘個所를 넘고잇다한다 그래서 事變前에도 多少建築景氣가 조타고 할때에도 競爭이 甚하야 큰經濟거리이엇는데 最近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土管한個도 팔리지안는 날이종히 잇스므로 利를 조곰먹고라도 팔어야하겟다고 職工의 工錢이나 부처주면 파는形便이라하야 建築會社에 納入을主로하던 比較的큰工業所에서도 어떤小商事業者들을 어찌할수가업서서 머리를 앓코잇다『콩크리트』工業所라고 하면 各種土管 鐵條柵柱『블럭』煙突 塵芥箱等의 製造와 建築物現場工事等을 하는데 土管이나『블럭』塵芥箱等은 한개두개씩 사러오는사람도 잇지만大槪는 新築家屋建築場에 供給하는것이 其大部分이다그런데 其原料는洋灰、모래자갈로서洋灰는 東大門金融組合內에 잇는『세멘트』協同組合에서 配給하는바 市場의 都賣商은지금五十瓩一袋에 一圓二十錢에파나 組合에서가저오면 七錢이싸게一圓十三錢에 가저온다고한다 그리고모래는 굵은모래와 가는모래二種을 混合하여쓰는데 其理由는 京城市에서 가까운距離에잇는모래터는 土管原料로 모두가適當한것이 업스므로 不得已굵은것과 가는것을 混合해쓰엿는바고 漢江邊에잇는 가는모래는 從前에 京城府에서 取扱할때는 한트럭에 四十錢에 팔든것이 再昨年부터 漢江이라는 個人에게로 經營權이 移轉되자 大十錢으로 引上하엿다한다 이것을 트럭業者에게 付託하여 사오는데 事變前에는 한트럭에 二圓四十錢주든것을 事變後에는 트럭의數가 激減되여 三圓五十錢을 주어야 한다고한다 또 굵은모래는 弘濟院과 彌阿里 시내가에잇는데 弘濟院에서는 누가禁止하는지 몰라도禁止하여 彌阿里에서 파오는데그것亦是 한트럭에 三圓五十錢인바『콩크리트』業者는 어디서어떠케 가저오든지는 알배아니고 오직 트럭業者에게 굵은 모래던지 가는모래던지 한車만 파오라고해서 代金만 支拂할뿐이다 그런데 土管이나 塵芥箱이 날로○○하고 모래만이 자갈을使用하면 其耐久力은 比較的수얼스러워 ○하나 자갈값은 모래값보다 八、九倍나 高價이므로 使用치안코 洋灰이나잇서야 자갈을너키도하고 도○○을 넘어달라면 ○○을너코 ○○하는일도잇다한다 이제 ○○町에잇는 大昌콩크리트 工作所에서 土管을만드는것을보면 ○은鐵板에다 洋灰와 모래를 一定한比例로 물을부어가지고 잘混合하야 大小를따라 鐵板으로만든圓筒의 型에너코 잘다진後에 圓筒型을 빼는데 勿論型을여러個가지고 하는것이아니라 한개를가지고 ○○製造하는것이라 洋灰와 모래의 分量比例 또其水量이 適當치못하면 型을뺄때에 문허저 버리므로 그것을 잘하는것이『콩크리트』의 技術인바 그것을잘하면 날이갈수록 더稠固하여저서 耐久力이 强하게되는것으로 적어도 半個年以上은 經過하여야 技術者란말을 ○을수잇슬 程度가된다고한다 이모양으로『블럭』이나 塵芥箱이나 其他鐵條柵柱는 勿論하고 一定한으로 ○○하는 ○○鐵條柵柱는 ○柱는 ○○三寸 長六尺인 一本에 八十錢 塵芥箱 中型에 四圓五十錢程度로 모래 洋灰 ○○○○ 勞働者의 ○은지안흔것이 업스나 競爭者의數가 넘우도만허서 ○○○價는 事變前보다 오히려 低下하엿스면 低下하엿지 올른것이업다고한다 그나마도 建築業者들의 建築이나 中小住宅들의 建築이라도만타면 모르겟스나 建築材料의 昂騰과 不動産金融이 一切로 ○○後부터는 住宅經營者들의 建築도完成치못하고 中斷하고잇는것이적지안흠으로 콩크리트工作所에미치는 影響이 적지안허 大昌工作所만 해도事變前에 比하야 一日平均賣上高가三分一로 줄어든現狀이라한다 그래서엇더前에는 세멘트協同組合에서 콩크리트業者들을網羅한統制機關을 組織하자는 論이提案되며 方今考究中이라한다 (寫眞은土管製造光景)



全羅麥作豫想高

全北은八分一厘減 全南은二割六分減

【全北支社發】既報=全北道今年麥收穫은 百萬石을豫想하엿든바初期旱害가原因이되여 比前年一割八分의 面積增加이나 豫想外에六月一日現在本道麥收穫豫想은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作付反別	收穫豫想	前年對比
▲大麥	三三五、四〇九反	二九三、四六四石	減 八二、三七一石
▲小麥	六三、四七〇反	四〇、三四四石	增 一二、二九〇石
▲裸麥	七六五、二二三反	五八一、七一五石	減 三三、八六七石
▲其他麥類	九、七七六反	五、七〇三石	增 二、一二九石
▲合計	一、一六三、八六八反	九二一、三二六石	減 一〇一、八一九石

【全南支社發】全南今年度麥作耕作總面積은十八萬九千町步로 그收穫豫想百八十一萬八千四百八十三石이라는데 前年總收穫二百四十四萬二千百九石에比하야 二割六分減少로平年作에比하면 一割六分減收라한다 그리고 그耕作面積別과收穫豫想段別은如左하다

▲作付段別 一八九、五八五町七段

▲內譯 大麥 三七、五一八町八段 小麥 九、八二五町二段 裸麥 一四二、二四一町七段 라이麥 二六町

▲收穫豫想高 大麥 四二一、六六七石 小麥 六五、八九五石 裸麥 一、三二〇、六六九石 라이麥 二五二石 計 一、八一八、四八三石

麥作減收

▲麟蹄 麟蹄地方의 今年麥作은 春期旱魃의 因하야 大減收를 豫想하고 잇는바 昨年에 比하야 五割 平年에 比하야 三割의 減少를 免치못하리라는데 刈取는 今月二十五日頃에 完了되리라한다

▲錦山 錦山地方의 今年麥作狀況은初春에繼續되엿든 甚한旱魃과 寒으로 凶作이라는데 今年收穫豫想高는 五萬九千七百二石으로 昨年實收高에比하야 四千六百九十六石의 減收라는바 面別的收穫豫想高는 如左하다한다

錦山面	五七三五石
錦城面	九〇六〇石
濟原面	六五七一石
富利面	八七九一石
郡北面	七三四八石
南一面	三三八六石
南二面	五三一〇石
珍山面	四六八〇石
福壽面	二九九四石
新富面	六八二七石
計	五九、七〇二石

黃州蘆簾、蘆笠

年産額三萬五千圓

【兼二浦】蘆田開發地로 가장 有名한 黃州一圓은 各部落에서 本業或은 副業으로 蘆簾(갈발)蘆笠(삿갓)등을 多量으로 産出하는데 蘆簾이 二十萬枚 삿갓이 萬枚以上의數字로 主要는 延白、平山、開城等地로 移出하는데 現在原料가 缺乏하여 注文需要에 苦悶中이라고한다

平南春蠶收繭

三十萬二千貫豫想 比昨年六分五厘減

【平南支社發】十一日現在 平安南道農務課發表에 依하면 第二回春蠶收繭豫想額은 三十萬二千貫으로 昨年에 比하여 六分五厘의 減收를보엿다 減收의 主要한 原因은 山間地帶 一部의 桑園에 記錄的 霜寒으로 因하여 發育狀態가 不良하기때문에 掃立枚數를 減少한것이며 그후春蠶生育狀態는 평년보 ○가보에서는 天候를 ○○지낫고 상가보에서도 三齡을바로지나 發育狀態는極히 良好한터이다 그리고 今年부터 採用된 새로운品種인 歐十九號와 支十七號의 交雜種의收繭量增加에 큰期待를 가지고잇서 掃出紙數는 最少限度로머저집어하며 春蠶出廻期는 十六日順川을 비롯하야 順次로二十三四日頃까지에 全部의 共同販賣가 끗날豫定이라한다

昨年中蠶繭販賣

共販四十萬六千五百七石 個人販賣三萬九百九十石

總督府農林局調査에依하면 昭和十二年農家蠶繭販賣는 共同販賣에依한數量은 四十萬六千五百七石이요 其價額은 一千二百五十萬二千六百二十七圓이며 個人販賣에依한 數量은 三萬九百九十二石이요 其價額은 百二萬三千二十四圓으로서 兩者의 合計數量은 四十三萬七千四百九十九石이요 其價額은 一千三百五十二萬五千七百五十一圓이다 그런데 이것을 前年에比하면 數量에 잇서서는 六分一厘 價額에잇서서는 二割五分二厘의 各各增加를 示하엿는바 平均十貫의單價는 五圓六十七錢으로 一割八分高이엿다 그런데 今年은春繭値基가 昨年보다 十圓高인二百五十二圓으로 決定되엿고 掃立豫想도 昨年實掃立數十七萬貫에比하야 三萬貫의 增收인 二十萬貫을 豫想하는터이요 共同販賣의 徹底强化에伴하야 其數量이나 價額에잇서서 昨年에比하야 增加하리라고본다

蠶繭共販

【寧邊】平北寧邊郡農會에서는 例年에依하야 春蠶繭共同販賣를 左記日割에 依하야 實施한다는데 今年은 昨年보다 蠶兒飼育成績이 良好하므로 出廻數도 多數하리라고豫測된다

蠶繭共同販賣豫定日割

販賣場所	實施豫定期日
寧邊	自六月二十四日至七月八日
八院	自六月二十七日至七月二日
南新峴	自六月二十七日至七月二日
南松	自六月二十七日至七月二日
泰平	自六月二十七日至七月五日
北新峴	自六月二十五日至七月六日
龍山	自六月二十三日至七月二日
百嶺	自六月二十五日至七月八日

沙里院

沙里院地方의 今年度春蠶市勢는 昨年보다 約二割가량이 低落하엿다는바 共同販賣市勢는 昨年에 一貫四圓五十錢가량하던것이 今年度에는 三圓六十錢가량밧게는 못할것이라하야 郡內五千養蠶家에게는 적지안흔 打擊이라한다

松虫蔓延으로 全林野五割荒廢

農家에서는大憂慮

【麗水】全南麗水郡에는 한七年前부터 松粘蟲가 發生하여 數面에서 蔓延하더니 今年에는 突然히 麗水郡各面에 蔓延되야 全麗水郡林野面積 近四萬町步中 四割以上인 一萬五千餘町步가 全部荒廢하여버렷다한다이 山林의 濫伐이 極難할것은 勿論 直接民衆의 生活에 大影響이미치는 燃料때문에 大威脅을 밧고잇는중 特히其中 麥田面과 召羅面등은 더욱이 冬期飼牛의 餓止와燃料等 其他여러가지로 大困難을 밧고잇는사람이적지안타한다

日本서처음으로成功한

ビタミンF配劑のポマード

비타민F의포마ー드

藥用 純粹植物

メデカポマード

메데카포마ー도

비타민F란

에반누氏바ー 끠氏等에 依해서 一九三三年 米國스탄포ー드大學에서 처음으로 發見한것으로서 皮膚細胞의增殖及 毛根의强化에가장 重要한一種의脂肪性비타민입니다

★비타민F의乏缺은

皮膚細胞의 脂肪性新陳代謝가 나빠저서 皮膚가 鱗屑狀으로 脫落하야毛根이자개지고 出血班과 여드름과가튼 吹出物이 發生하는等 特히 毛質의發育을阻害하는 症狀을 呈합니다

★皮膚及毛根의發育上

코레스테린・레시틴及비타민F는1:1:3의比率로 要求되고 잇는것이 今日의臨床學上立證되고잇습니다 비타민F를레시틴・코레스테린과共히有効且合理的으로 配劑한것은 日本政府特許에係한本舖만이 獲得한方法이잇슬뿐입니다

★비듬이만코、머리가가렵고、머리가빠저

어귀한障害의原因은 日常頭髮의손질이 不充分한데 依한 現象인故로 整髮前에반드시丹頂ヘヤートリン의 數滴을문질러바르고 그 機能을 旺盛케할것입니다 丹頂ヘヤートリン은皮膚科學界의 最高權威獨逸은나博士의發見에依한 毛髮의基礎的新榮養料를 主劑로하고이에 毛根을 保護하는 特殊 淸淨殺菌劑와 그 機能을 旺盛케하는 新强壯劑及毛幹及頭皮를 保護하는대 有効한 極히 浸潤性이豊富한純良植物油의 適量과를 巧妙히 配合해서 完成한 極히 多角的인作用을有한 理想的養毛劑입니다 비듬、가려움막음에效果的確함은 놀랠뿐입니다

★그런뒤에ー

皮膚榮養에强力한效果를 가진 비타민Fー配劑한 メデカ포마ー드를使用해주섭시요 여러케 해야만育毛와 整髮效果는百퍼ー센트로 發揮되엿다고할수잇습니다

本品은學理에基한製法에 두가지專賣特許權을有함

頭髮に活を入れよ！

그것은！

頭髮이强하게되는거나 또 枯死해서 拔毛하는것도 그原因은단지하나 비타민F가 缺乏한가 안한가에依하는것입니다 實로 頭髮의生死의原因은 비타민F에 잇는것입니다 頭髮에活을주라고하는것은 毛根에 비타민F를補給해서 養毛活動을 旺盛케하는것입니다 頭髮은 그리함부로빠지는것은안입니다 이頭髮의 活力素비타민F에 更히코레스테린・레시틴의 榮養素를配劑한 日本서단지하나인 メデカポマート야말로 永久히黑髮을 約束하는 逸品입니다

것트로만의整髮美와香氣와 잘감아지는것等을자랑하는 포마ー드로 拔毛防止、美髮持續의效果를 어들수잇슬런지요？ 躍進하는 醫科學이發見한 비타민F를明晰한 學理에基하야 配劑한 メデカ포마ー드를 發賣하자마자、금작이 비타민F가 問題가되기始作햇슴니다 비타민F는 그만치魅力이잇는것입니다 그것은 이效果가 얼마나 絕大한가를 말하는무엇보다도 조흔 證據라고 하겟지요

▼또하나 냄새가 조흔點은 只今까지의 포마ー드에서는 [illegible]수업는 メデカ만의자랑입니다！ [illegible]

丹頂化粧品本舖 金鶴香水株式會社 ¥.43 .63 .95

(賣藥部外品)

各메파ー트 藥店 化粧品店에잇슴

農家四千六百戶의 滿洲移植을計畫
各道의 移民協議會에 提議할
平北道移民十個年案

【新義州】 전조선각도이민(移民)협의회는 오는이십일부터 총독부에서개최하기로되여 평북도에서는오(吳氏)사회주사가 출석하기로되엿는데 평북도"만주이민"십개년계획의중요사항을 보면 다음과갓다

제일년도 소화십사년의 평북농호수 삼십만호천 이백십이호(戶)에서 이민예정호수는구백팔십일호로 제이년도인 십오년(年)에는 삼천육백구십이호 이민시킬계획으로 이를 종별로보면

▲集團移民
第一年度 二〇〇名
第二年度以降 五〇〇名式
▲農業以外의職業指導
第一年度 二八一名
第二年度以降 二、六九二名
▲緣故自由移民
第一年度 五〇〇名
第二年度以降 五〇〇名式

未就學兒救濟策
大邱府內四個小學校를開放
三個月間夜學開講

【慶北支社發】 근내무엇무엇해도 제일활발한 템포로 팽창해가는 것은 교육령개정이래의 교육기관확충일것으로 우리의경하할바이다 그러나대구부에서는 현재도 일년에일천명의 미취학아동을내는터로 이를 여하하야서 한처잇는 기관에 수용할가하는 문제를 성의잇게 강구하여오든 중으로 혹은이부제의실시 혹은 강당의 림시교실화 혹은사립학교, 학술강습회등의 기능확충, 등모든교육기관의 능률을노피고 잇는터이든바 오는칠월일일부터 삼개월간에 부내 덕산(德山)남산(南山)수창(壽昌)서부(西部)등 사개공립소학교를 이용하여 야학(夜學)을 실시하여 국어보급 야학회를열고 남녀오백여명의아동(十才以上)을 수용교수한다는바 이로말미아마 문맹을버서날 학령을초과한 아동의기쁨이 크다고한다.

全北專賣局서
特製煙草販賣

【全北支社發】 전주지방전매국관내 연초소매인 일만사천칠백칠십여명이 적성으로인하야 헌납하게된 고사포(高射砲)헌납식은 본보에 이미 보도한바와가치오는유월이십육일에 거행하기로되엿는바 이에대하야 전주지방전매국에서는 이애국행사(愛國行事)를 영원히 기렴하기 위하야 유월십육일부터 동삼십일까지 관내일대에 병기헌납식기렴연초(兵器獻納式記念煙草)를 판매하기로되얏다고한다

第八回臨時道會
三議案을可決

【淸津】 십삼일에소집된 제팔회함북림시도회는 오전열시정각 도청회의실에서 아도의장(兒島議長)동재하에열렷는데 상정된의안은 웅상어항(雄尙漁港)의공사비 따위를중심으로한 삼개의안으로 (第一號議案 雄尙漁港修築工事費繼續費設定의件) (第二號議案 雄尙漁港修築工事費起債及同償還ニ關スル件) (第三號議案 昭和十三年度咸北道歲入出追加更正豫算) 등인데 도지사의연술이잇슨다음 의사는진행되야 제일, 제이호안을 변경심리한다음 삼독회에드러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얏다

出勤과退廳時에
自動車乘用廢止

【延吉】 시국의중대성에 감하야 『까소링』등속의 절약이 일층 필요하므로 군청간도성에서는 종전고등관의 자동차로 출근퇴청하든것을 폐지하기로하엿다한다

運轉手過失잇다
大邱七星町길복事件
禁錮八個月을言渡

【慶北支社發】 누보=대구칠성정(七星町)길복사건이란 사상자까지 내엿든 자동차충돌사건의 책임은 철도국으로부터 기(遮斷機)를 더디내리여 이와 가치 되엿다고하야 책임을 철도국이 자부하엿스나 당국에서는 자동차운전수인 권기상(權奇相)(三二)을 책임자로 추궁송국하여 기보한바와가티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취체규칙위반(自動車取締規則違反)과업무상과실치사(業務上過失致死)죄로 금고(禁錮) 팔개월의 구형을 바더 장차재판장의 판결이 여하히될가하는것을 일반이 주시하여왓는데 지난십일오후 서촌(西村)재판장으로부터 당시정도래일호에 자동차를 정차시켯다는것은 여하한 이유가잇섯슴을 불문하고 운전수의잘못이라는 판결이유를드러 구형과가튼언도를하엿다고한다.

兄弟싸움끄테
아우가縊死!

【群山】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동생이 목을매여 죽은사건—군산부소화통(群山府昭和通)삼백십팔번지에 방금 싸전업(米穀商)을 경영하는중인 권무지(權無智)(三三)와 그의아우인 권무식(權無識)(二六)의 두형제간에 서로언쟁을 하엿섯든바 형인 권무지가 집으로 밥먹으러간 사이에 아우인권무식이 그만분에 못이겨 대들보에다 목을매여 죽엇다한다

農村人夫不足

【牙山】 충남아산지방은 시기가 적당한차제에 감우가 나리엿슴으로 일반농민들은 적앙가를부르게되엿는데 그반면의 인부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리라고한다 언제던지 농번기가되면 노동자가 부족되다하지만은 금년에와서는 여러곳에서 정공되는공사장으로 모집되여 갓슴으로 종전에 인부를 싸오시장에 불과하던것을 지금와서는 배인분 임금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지보통임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매우 곤난된다고한다 여기저서 인부부족을 서러는터 이사실을 보면 ... 에서는 ... 생에에는 관계가업다한다

面吏員의講習會
慶北道서大大的準備

【慶北支社發】 경북도내 각군에서는 이번에실시되는 면리원(面吏員)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위하야 군부(郡部)별로 면리원강습회를 열고 그지도에서는 현하 지구전에들어간 시국하 총후도민의 농진운동, 생산확충등,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물심양면의 지도가지질하야 여것스므로 이를 일동지도를계속하는기관을 도내에실시하고 도내각군에서 선발하여 국어, 렴사, 법제등과 각과장 기타기사를 강사로하야 ... 회를 개최하고 ... 회가 만흔 ... 가장전습할기 하야 ... 고한다

賭博開帳中에
五千圓을奪取
新義州署犯人搜査

【新義州】 신의주서에서는 수일전 안동경찰서와 협력하야 ...

入試問題漏洩事件
四名에게一年役
平壤法院에서言渡

【平南支社發】 한때 세상을떠들석하게한 평양의학전문학교와부내 중등학교입학시험문제를인쇄중의 형무소에서 절취하여밀매한 평양부신리(新里)악기수선업 김영식(金永植)(三二) 평양부본정(本町) 북도(北島)인쇄소직원 이순길(李順吉)(二?)과 목하복역중의 전과삼범 윤광(尹光)와 동고두칠(高斗七)등 네명에대한 공판이 십삼일평양지방법원에서 열렷섯는데 사태(寺澤)판사는 절도죄로 구형대로징역일년의 판결을언도하엿다

술값代身으로
酒母에게주먹질

【木浦】 방울새우가며 질탕히먹은술갑을 주먹으로 갑는자가잇다

銅線節約으로
電話架設中止

【木浦】 목포전신전화공사당국(木浦電信電話工事當局)에서는 구리절사를 사용하는 모든공사는 당분간중지하라는 체신국(遞信局)명령에의하야 목포우편국관내의 지금개설중의공사(電話開設工事)중에서 아즉착수치못한 이십여개의 공사는 착수유예(着手猶豫)가되엿스나 다만절사를 사용하여서 될데만 가설할터이라는데 이전사시대가 다시 도래된모양이라한다

腸窒扶斯豫防注射

【全北支社發】 차차 절기때에 발생하기쉬운 하절을 당함으로 전주서위생계(全州署衛生係)에서는 하기보건을 철저히 하기위하야 부내각료리업자 려관업자에게 장질부사(腸窒扶斯)예방주사를 십삼일에 시행하엿다하며 이십일일에는 각초중등학교(各初中等學校)회사(會社)공장(工場)등의 종업원(從業員)에게 시행하리라고한다

江界水電"땜"에도
近千戶農家水沒
道、會社間對策協議中

【新義州】 압록강수력전기(鴨江水電)"댐"설치에 따르는평북 삼총강안 오근십삼면 농가"수몰"문제로 적지안은 두통거리가되여잇는 평북에 또가든문제가이러나 관계자들의 주목을끌고잇다

즉금년도부터 삼개년계속 사업으로되여 잇는강계 수력전기(江界水電)의제사"댐"건설에의하야 강계군시중면심방동(時中面深方洞) 삼백오십호 고산면연상동(高山面延上洞) 이백오십호 어뢰면청천(漁雷面晴川洞) 삼백오십호 합계구백오십호의수몰가옥을 내이게되엿스므로 도에서는 회사측과 신중협의를한후 수몰지대에대한 방침을결정하려고 방금 비밀리에 조사중이다

禮山新陽小學校
附設簡校認可

【大田】 十一日附許可 충청남도 례산군 신양소학교부설간이학교(禮山郡新陽小學校附設簡易學校)를 지난십일부로 인가되엿는바 금월하순에개교하게되리라고한다

慶南에長霖繼續
麥作四割減豫想
棉作에도被害가不少

【慶南支社發】 경남도내일대에는 지난십일일밤부터 비가오기시작하더니 그치다가 오다가 매일가치 장마가 지금까지 계속되여 수차의재해로 불행하나마 거두게된 보리가 금번장마로 말미아마 만흔피해를 당하게되어 약사할가량의 감수가 예상된다고하며 면작(棉作)은 비교적발육이 양호한듯하든것이 금번장마로 만흔피해를 보게되엿다고한다 그래서 일반농민들은 크게걱정을하고잇는데 금후의 천후가 퍽으나 주목된다고한다

天安邑面長會議

【天安】 충남천안군에서는 현하비상시국에처하야 군민일반의 의무를다하자는견지에서 지난십삼일오전팔시부터 읍면장회의(邑面長會議)를 군청회의실에서 원군수(元郡守)사회로 개최하엿다고한다

鎭南浦防氷堤
七、八月에實地測定

【鎭南浦】 진남포항의생명선인방빙제(防氷堤)축조문제는 점차구체화하여 진남포부에서는 금년도예산에 일천오백원을 계상하고 각방면으로 조사중이든바 방빙제축조가 완성되면 유빙해가 전연근절될수 잇는동시에 축조사업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것이 판명되엿스므로 부에서는 칠월과 팔월조수경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대동강에 방빙제축조현상을 상세히 실지조사를하는일방 경식측량에 착수할방침이라는바 측량이완료되는대로 총독부에 구체안으로 진정하리라고한다

小學設立期成會
葛浦大夫洞民들이

【盈德】 경북영덕군영덕면창포(盈德郡盈德面葛浦)대부동(大夫洞)은 본군해안에잇서 사오백호의 다수주민이 거주하나 대개는 그날그날의생활을 겨우 유지해나가는이가 대부분이나 시대의 진전에따라 자녀교육(子女敎育)에도 열중하야 삼리원거리로 영덕읍내 흥은강구(江口)고봉준령(高峰峻嶺)을 넘고 벽파사장(碧波沙場)을 밟어가며 칠팔세 아동들이 새벽에갓다가 일모(日暮)에도라옴을 볼때마다 그부형들은 조석을굶어가면서도 할수만잇스면 학교를 설치하려고 오매불망의 숙제중에 나려오던바 김용천(金鷹千) 이종락(李鍾樂)외제씨의발기로 소학교기성회를조직하엿다 전기 양동민(兩洞民)들은 자나깨나 학교설립이 문제이던바 다행이 본년사월십오일에 창포소학교설립기성회(葛浦小學校設立期成會)를 조직하고 귀안동에서 역원(役員)을선거하야 회의를열고 결과 동이십오일에 역원회(役員會)개최현장에서 사천원의기본금(基本金)을 거출하엿스며계속하야 회원들은 자진하야 금주(禁酒)절식(節食)까지하야 매일 일보(日步)로 부담금을조합하는 기로하엿다 期成會長 金鷹千 副會長 李

長篇小說
林巨正 【118】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八十六)

한온이의집 이사는 한머리가 이왕 벌써 왓고 내행이 광복산일행과 어금비금 가치 돌어오고 그뒤에 한온이가 황천왕동이와 작반하야 나려왓다 황천왕동이는 광복산으로 갈작정인데 한온이에게 끌려서 청석골로 온것이 도리여 헛걸음안하고 잘되어섯다 전옥에가친 다섯사람중의 원씨는 포청에 잡힌뒤로 물한모금 아니먹는것을 전옥에서 억지로 한번 미음을 먹엿더니 미음먹이든날 밤에 혀를 깨물어서 인해 죽엇고 박씨와김씨는 원씨 죽은뒤에 형조 장례사(掌隸司)로 넘기라고 우에서 처분이 나려서 장차 관비들을 박히게되엇고 두졸개만은 처참을 당하게되리라고 한온이가 소식을 알어 가지고왓섯다 꺽정이가 전옥을 파옥하라고결심한것은 주장 세녀편네를 살릴맘이엇는데 하나는 이미 자결하야 죽고 둘은 장차 관비가되어 살게된바엔 구태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일을 할까닭이 업서서 중지한 전옥파옥을 아주 파의하기로 하얏다 장통방사건이 생긴곡절을 한번 큰밥이에게 물어보고 큰밥이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꺽정이는 광복산에서 온뒤 알은체안코 내버려두엇든 큰밥이를 도회청 조사끄테 잡아드려다가 뜰아래 끌려노코 전후전말을 털호 기이지말고 바로 알외라고 호령하얏다

『소인이 그날나제 대장께서 동소문안에 기신가하구 뵈이러 갓습드니 수인쓰든 행랑방에서 두놈이 쪼처나와서 서울구경을 시켜내라구 졸릅드니 졸리다못해서 두놈을 데리구 나와서 우아래대궐을 구경시켜주구 북촌에서 남촌으로건너와서 회동서 초전골루 나려오는중에 그놈들이 술좀사먹으러가자구 끄을기에 소인은 그놈들이 술갑을 가젓나보다 태평 밋구 술집에를 가지안핫겟습니까 실컷술을 먹지 먹구나서 그놈들더러 술갑을 주라구 하닛가 그놈들은 소인을 밋구와다구 소인더러 주랍니다 세상에 봉변이니 어떠케합니까 할수업시 술갑 업어서 나왓습니다가 포교놈에게 붓들렷습니다 나중 알구보니 그포교놈이 술집주인과 짜구서 [illegible] 그놈에게 붓들녀가서 저녁내 가지구오마구 겨우 사정하구 나오는데 소인이 혼자 빼온이들까봐 한놈이 가치가자구 따라나서서 한놈만 포교놈 집에 남겨두구 두놈이 나왓습니다. 대장께 말씀할말슴을 엿주려구 이리저리 차저다니옵다가 장차 한번 뵈엿지만 꾸중만 들엇지요 ... 말씀해보려구 ... 을 좃처다녓는데 따구 보시질 안앗지요 말할수가업서압지요 그대루 청석골로 가서 만나서 사람을 못만나서 변통을 못햇스니 우리를 엿주보내주면 술갑을 내일 갓다드리겟구 못미더서 못보내주겟스면 욕을하든지 할말잇는지 마대루 하라구 배짱을 부렷습지요 그러다가 포청으로 끌려갓소이다 술값이루 뭣의 그러면 일이 벌어질줄은 꿈에두 생각못햇소이다 ... 포교놈들이 소인놈을 수상하게 보구 통을 치는데 ... 어떠면 멀쩡한것을 그모양 진놈들이 벼락이정청 한바탕에 혼신이 나갓든지 할소리 안할소리 다 지꺼린모양입니다 그놈들이 청석골서 대장을 뫼시구왓다 동소문안 대장부인댁에서 묵엇다 대장이 나제 장차필다리 기생집에서 약주를 잡수셧다 이따위 소리 지거린것을 딴방에 잡혀안젓든 소인이 알까닭이잇습니까 말마취보느라구 뭇는것을 소인은 아니라구 잡어뗏다가 한죽까지 주어밧습니다 화추이든 절믄포교 한놈이 소인더러 ... 까지 말합니다 어떤 포교놈이 밍살스럽지안흔권 아니지만 고놈은 확실히 밍살스럽기가 짝이 업습니다 장차필 기생아가씨댁과 동소문안 김씨댁은 두놈중의 어떤놈 한놈이 댓습니다 원씨와 박씨는 김씨가 놈구시섯다루 불어냇씨 원씨 박씨 세분 조사에서 돌리는바로안 한서방은 김씨댁이 나려벗던 소인은 동소문안 김씨댁과 남씨댁을 바치것이 끄뭉루 업소이다 이겟소이다 말잇는걸 다 뒤루 일봉처서 말은듯어보자 듯하외다』

큰밥이가 길게 지꺼린말이열의며덜 아홉은 거짓말이건만그 거짓말을 분명이 밝기잡을사람이 업섯다 거짓말이 의례건만 이 석경스럽니 꺽정이가 잡작하고

『우리가 장차필가잇는건두 네가 대구 한서방과 우리의사이두 네가 불엇다는데 이놈 누구를 속기려구 거짓말이냐』

하고 넘겨잡고 꾸지즈니 큰밥이는 기가막히는 모양을하고 한참잇다가

『어떤놈의 입에서 그런말이나왓는지 그야말루 거짓말이올시다 소인이 그러할통 봇엇스면 달은데루 내뺄정리를하지 이리루 오겟습니까』

하고 발명하얏다

『전옥에 가친놈이 여기까진 오긴 어떠케 왓느냐』

『소인은 처음에 귀양이나 보낼줄루 직작햇습드니 전옥에 갓다가 스물닷근 칼을 씨워서 가두는꼴이 잘못하다간 얼뜨게 죽을것갓솝기에 역죄고 변한다구 거짓말하구 금부루 넘어가구 대장부인을 잡어바친다구 거짓말하구 금부나장이 다름놀 쪼구 여기까지 왓소이다 소인이 거짓말한것두 기이지요 다 바루 알외니다』

『백골이되지오랜 우리어머니를 들치내서 비할곳라두 욕을보엿스니 그죄만하드래두 너는 당연이 죽일것이지만 간신이 살어오랑 죽이기 불상해서족 몰 용서하니』 꺽정이는 큰밥이를 용서하야 주엇다

躍進開原紹介版 (三面參照)

勤實한老事業家
一進精米所 崔承賢氏

氏는 黃海道長淵郡出生으로서 二十餘年前부터 從事하야 土地開拓 敎育事業等에 만흔活動을한 분이다 大正七年度에 當地로來住하여 現在百五十天地의 大農場과 精米業을經營하는一方 金融組合長 學校組合評議員 地方法院調停委員 奉天東光學校父兄會副會長等의 公職에잇스며 當年六十三歲의老齡이지만 아직도身老心不老의 氣魄으로 活動을하는篤望노픈 老鍊事業家이다 (寫眞은 崔承賢氏)

模範的靑年
第一米店 鄭元熙

氏는 平北宣川郡出生으로서當年二十七歲의 健實한 靑年이다 十有餘年前에 來開하야 當地市場株式會社에서 오래 奉職하다가 昭和七年부터 現在의第一米店을 經營하는中인바 氏의 篤實味잇는 活動은 一般의 耳目을 끌고잇스며 더욱이 基督敎靑年勉勵會의 會長으로 잇스면서 여러가지 事業에 奉仕하야 模範의 的이 되고잇다 特히 氏는 全開原의 代表的短距離名選手로서 스포츠界의 寵愛를 一身에 受하는분이다 (寫眞은 鄭元熙氏)

開原社會中堅
朴洛承氏

氏는 일즉 東京明治大學出身으로 平北慈城郡守 熙川郡守等을 歷任한 분으로서 在職六年餘에 그治績이 자못優越하야 가는곳마다 一般의 稱頌이 노팟스며 昭和十年에 當地에 來任하야 朝鮮人民會理事로 就任하야 多年一般住民의 福利增進을 爲하야 碎身盡力하든바 治外法權撤廢에 依하야 民會解散과아울러 只今 開原學校組合副組合長의 重職에 就하야 農村敎育事業에 如前히 活動하는바가 크며 管內興隆農村에 四百餘天地大農場을 經營하는것도 잇스며 매우人格과 德望이 兼全한분이다 (寫眞은 朴洛承氏)

實踐躬行의士
鄭文源氏(一名道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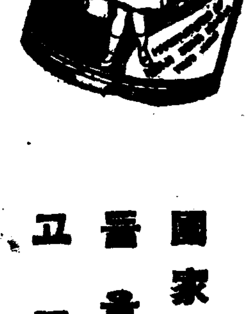
氏는 黃海道殷栗出生으로 當年五十五歲의老事業家이다 只今부터二十數年前에奉天省柳河縣三源浦에잇는 理想村『知足農村』이라하면 아직도 우리의記憶에 새로운거니와 氏가 바로 그創設主요主人公이엿스나 異域에彷徨하는農民을糾合하고 그生活을樹立하려는것이 氏의오직한아의 理想이엿지만 不幸히內外로다치는 여러가지 障礙도 만하고 더구나 累年襲來하는 馬賊의亂으로 마츰내 分散의 悲運을 當하고 드되여 七年前에 開原으로移住하야 管內馬家子에 다시 知足農村을建設하고 五十餘農民을指導하는一方 學校를세워 農村兒童敎育에 全力하엿다 現在는 市內에서 泰山精米所를經營하며 如前히 農村에 關與하고 잇는바 언제든지 朝鮮바지、두루마기에 넓은中折帽子를쓰고 무슨일에나 스사로 몸소하기지안는 實踐躬行의志士다

開原縣前旗家傑子 金鼎農場 金成亮

開原街長 三原時雄

陰萎·勃〇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專門博士有効證明
局〇塗布藥 最新發明 セーブレピン

●本劑는、芳香性크림狀의局〇塗布藥으로써、爽快한充血을起하야 勃起를促하고 性慾을 促進하고、勃起力을 增大케하야、多大한快感을與하고生殖機能을完全케한다、奏効急速確實한最新發明藥이다 (試藥은二十錢要)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發育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價格)(男女共用)一回一瓦程度塗布 二〇瓦 一圓五十錢 五〇瓦 二圓五十錢 百瓦 四圓五十錢 携帶用十本入三圓 送料四十二錢
東京市靑山三丁目電車停前 合資會社 天醫堂 振替東京一九二四番
●說明書贈呈無代進呈
京城本町四丁目 木村藥房
平壤大和町 森田藥房
安東縣市場 一木藥房
大連浪速通 日本實藥會社
(代理店)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釜山辨天町一丁目 大黑南海堂
釜山辨天町二丁目 藤田藥房

母乳代用優良煉乳
◇實行은日本一◇

明治メリーミルク (메리-밀크)
國家의寶貝인어린이
튼튼살저고자라
明治製菓株式會社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御推獎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갈려지는것가티몹시아플때!!
●바눌로쑤시는것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뜨지안는때도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할때나 술을過飮하고餘毒으로氣分이 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 잘낫는名藥입니다 이노-신을 꼭 한봉만자수어보십시오 언제 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듯잇슬
가진것만 아니라 아조 머리가 明快해어러게 기묘하게 잘낫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害롭지는 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 잡수십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 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여러한良藥은 아모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고생하는분이게시거든꼭 이노-신을 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名藥藥店에잇슴니다 요사이 노-신과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와잇사오나 잘못하면속기가쉽슴니다 사실때에잘注意하십시오
登錄商標 帽子 印잇는 ノーシン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三番

体位向上!! 연어의常食

あけぼの印 キューピー印 オーロラ印
さけ罐詰
縱罐을새로賣出햇읍니다 平罐同樣으로愛用해주십시요
AKEBONO SALMON

오라/노래의파라다이스로
빅타-專屬藝術家 빅타-管絃樂團 總動員
빅타-大實演會
째스、民謠、舞踊、넌센스、코러스
時日 六月十八、九兩日夜七時
所場 於大邱劇場
出演藝術家
孫重文 黃琴心 李仁楓 朴丹馬 表鳳天 安玉鏡 曺永恩 盧碧花 李圭南 金福姬 林生員 申카나리아 駒井清 高木歌子

神經痛 류마치스에 ネウロジン (金劑)

合格保證最新改正版發賣開始
自動車運轉及各道就業免許 新準備書 全
定價 壹圓 送料 二十四錢
◎新入生募集 △在學中必ズ合格ス △就職(必ズ斡旋ス)
認可 朝鮮第一自動車學院
京城西大門町一丁目

卸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名賣藥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停留場前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 二五一八番 二五一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經濟解說 「링그」制란무엇

商工省에서는 貿易振興策의 一로써 輸出入「링그」制를 採用키로 方針을 決定하고 近般來 貿易局과 臨時物資調整局에서 그 具體案에 對하야 協議中인데 輸出入「링그」制라고 한말로 하지만 그 實行方法에는 一般的及個別的의 兩「링그」制가 잇고 또 各各에 對하야 團體的及個人的「링그」制의 相違가 잇서 右中 어느 方法을 採用할가에 依하야 當業者의 利害關係에 相異한 影響을 與함으로 이 點을 圍繞코 商工省內部에 意見의 對立이 잇서서 從하야 具體的作成에는 愼重히 하고잇다.

×

現下情勢로 보면 輸出入「링그」制는 一般的貿易振興策과 共히 그 實行에 對하야서는 一日이라도 等閑히 할수업는 情勢에 잇서 또 池田商相도 此際 急速을 取할것이라는 方針으로 事務當局을 督勵中이므로 近日中에 一般的及個別的兩「링그」制를 併用하기로 決定될 모양이다.

×

一般的「링그」制에는 個人「링그」를 適用하야 行하는 個人「링그」制와 또 個別的「링그」制에는 組合其他團體를 派하야 行하는 所謂團體「링그」制를 採用하자는 案이 現在가장 有力한데 個別的「링그」制의 適用을 受할 物品은 이 制度의 性質上 極히 少數에 限定케될것으로 「링그」制의 中心은 一般的個人「링그」制로 될것인바 此際 「링그」制를 實行함에 當하야서는 從來와가티 業者의 自主的措置에 委할수 업슴으로 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에 基한 商工省令「臨時輸出入許可規則」又는 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大藏省令「輸出入貨物代金의 決濟及外國爲替銀行의 制限에 關한 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 命令의件」을 改正하야 「링그」制의 强行性을 가지게하는 意味의 規定을 揷入케될것이다.

×

當局이 如斯한 措置를 取코저하는 根據는 大體如左한 것이다.

一、一般的「링그」制는 商品의 種類、性質이 如何함을 不問하고 輸出한 者에게 對하야 그 金額의 何割에 相當한 金額에 對하야 商品(主로서 原料品)의 輸入權을 與하자는 것이다.

一、個別的「링그」制는 一定한 原料로써 製造한 商品을 輸出한 者에게 對하야 그 原料의 輸入權을 與하는 方法이다. 換言하면 原料輸入과 製品輸出과의 連繫이다.

一、團體「링그」制 右兩方法에 共通되는 團體「링그」制라는 것은 商品을 輸出함에 依하야 取得한 輸入權을 組合其他團體에 使用케하자는 方法이다.

一、個人的「링그」制 이것은 輸入權의 行使를 個人에게 委任하는 方法이다.

從하야 一般的個人「링그」制를 採用한다면 어떠한 商品이던지 그것을 輸出한 個人은 輸出金額의 何割에 相當한 金額에 對하야 商品의 輸入權을 行使할수 잇게된다. 即 이制度는 輸出貿易의 伸長에 必要한 個人의 創意手腕에 力點을 두고 現在의 輸出業者、統制의 範圍內에서 自由活動을 認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滿洲及支那에 對하야서는 「푸레미암」이 붓게될것을 念慮하야 이에 對하야서는 適當한 方法을 講究케될것이다.

×

그리고 個別的「링그」制에 對하야서는 現在羊毛에 關하야 個人「링그」制를 實行코잇는데 이 個別的(商品別)「링그」制를 採用키 爲하야서는 그 前提條件으로서 原料와 製品과의 關係가 單純한것이 必要하다. 例컨대 棉花와 綿織物의 關係는 一見極히 單純한듯하나 棉花輸入으로부터 綿織物輸出에 至하기까지에는 製造加工行程만으로도 여러가지 段階가 잇스므로 綿布를 輸出한때에 엇서 그 棉花의 輸入權을 紡績業者에게 주느냐 織布業者에게 주느냐는 問題가 생기어 棉花輸入과 綿布輸出의 關係는 반드시 明瞭치안타.

어떠한 見地에서 보면 「스·푸」와 人絹의 輸入權을 「스·푸」及人絹에 相當部分을 이루고잇는 原料의 相互關係以上으로 複雜하다.

그리고 個別的「링그」制는 原料와 製品과의 關係가 單純하면 合理的方法이겟스므로 이 案을 適用하면 조켓다는 것이 主로서 中小工業者의 製品에 對하야 團體「링그」制를 併用하자는 理由인바 具體的例를 示하면 스·푸·人絹(스·푸로서)輸入과 織物의 輸出과 羊毛輸入과 豚毛輸入과 牛皮輸入을 連繫하는 것가튼 것이다.

新貿易政策으로 링그(連繫)制登場
一般個人制、個別團體制併用
近間省議로正式決定

【東京】商工省當局은 輸出의振興을促進하는一方 輸入을制限하야 極力國際收支調整을 圖할手段으로서 羊毛에 先鞭을대인「링그」(連繫)制의擴充이 가장妥當한貿易政策이라는 結論에達하엿스므로 池田藏、商相은 近間省議를열고 貿易局이立案한「링그」制를 決定을하기로되엿는데 貿易局案은

一、個別的링그制(原料=製品링그)(A)團體的링그(B)個人的링그

二、一般的링그制(全輸出=全輸入링그)(C)團體的링그(D)個人的링그

等으로 난우고 四者中어느方法을取할가硏究한結果 結局原料=製品링그制와 全輸出=全輸入링그制를 共用키로 內定하엿는데 前者는 團體링그、後者는個人的링그制를 採用하야 (A)와(D)로 決定되리라한다

資金調停法改訂
輸出產業에特典
軍需工業과가티優遇

【東京】池田藏相은 既報한바와가티 全產業部門에對한 生產消費에 全面的强力統制를 加하는同時에 輸出原料의 輸入緩和를 圖할方針을 言明하엿는데 池田藏相은 軍需工業을 中心으로한 國內生產力의 擴充과 輸出振興에 全力을 傾倒하기로 하엿고 特히 輸出關係產業의 擴張促進에 積極的으로進出하야 事業資金調整法運用方針의 改訂을斷行하기로되엿다

即 資金調整法은 軍需關係及生產力擴充關係產業에 重點을두어서 新設 擴充의許可를 行한後 改正을하엿스나 今回運用方針에 改訂을加하야 輸出關係事業의新設擴張에對하야는 軍需工業及生產力擴充工業과가티 取扱할것으로 輸出產業의 會社이라도 軍需關係의 重工業及化學工業等을 行하는會社에限하야 增資認可에當하야 從來의許可方針을 相當히緩和할意向인데 紡績의增資問題에도關聯되어잇는만큼 池田藏商相의 事業資金調整法의 新運用方針은 各方面에서 多大한注目을끌고잇다

產金振興株式 朝鮮配定七萬株

產金振興會社는一兩日에 設立委員을任命하고 產金增產의 緊急性에鑑하야 極力設立을急히하고잇는데 株式總數百萬株(其中民間五十萬株)中 朝鮮配定은 七萬株라한다

朝鮮製鍊 三萬株
東拓鑛業 一萬五千株
朝鮮鑛業開發 一萬五千株
小林鑛業 一萬株

東拓鑛業產金增產

東拓鑛業에서는 政府의 產金增產計畫에 順應하야 所有金山의 積極的增產을 計畫하고 特히 栗浦金山外 二三鑛區의 增產設備를 完全히하기로 되엿는데 增產資金은 百二十萬圓의中 請納中 八十萬圓을 이미 東拓을通하야 借入하얏다

朝鮮製鍊買鑛課新設

朝鮮製鍊에서는 今回職制의一部를 改正하야 庶務課를 事業課로부터 分離하는同時에 買鑛課를 新設하엿는데 右에伴하야 如左한人事를 異動하엿다

常務取締役 事業課長을囑託함 三澤正美
庶務課長을命함 牧保德
事業課技師 買鑛課長을命함 松永信雄

選鑛所新設擴張

朝鮮製鍊에서는 探鑛、買鑛의 增加와共히 選鑛所를 增設하야 새로이如左히 新設又는 擴張키로되엿다

▲忠北永昌=五十噸處理의것을目下新設中으로 本年十月完成

▲忠北無極=現在四十噸處理의것에 外에百噸處理의 選鑛所를增設 來春까지完成

▲全南谷城=五十噸處理의것을目下建設中으로來春完成

京城倉庫現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查=京城府內倉庫五月中의 貨物出入狀況은

	個數	金額
本月入庫	[illegible]	[illegible]
本月出庫	[illegible]	[illegible]
月末現在	[illegible]	[illegible]

前月末에 比하야 個數는七、九二○個의 減少이나 金額은五三一、七三三圓의 增加이엇다

米運賃會議 十五日에開催

八月以降의 朝鮮米運賃을協議할朝鮮輸送協議會는十五日부터箱根塔之澤에서 朝鮮側遞信、各穀物協會代表 總督府臨席官 內地側阪神 京濱 名古屋荷主代表及鮮米輸送協會等의 關係者五十餘名이 參集하야 問題의 運賃商議에 入하엿는데 既報와가티 그運賃에對한 見解에는 荷主와船會社側에 相當한 懸隔이잇스나 時節關係로 愼重한態度로 臨케되엿스므로 豫定의 二日間에 大體 最終的決論에 達하리라한다

鐵道事務所長會議

鐵道局에서는 來十七日午前九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各鐵道事務所長을 招集하야 十三年度實施豫算의說明 水害對策其他에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엿다한다

都賣
五月의物價騰貴相
大正十四年以來의記錄
比前年一割九分暴騰
◇…比前月四分四厘七毛續高

朝鮮銀行調查

鮮銀調查=五月中의京城都賣物價指數는 二四三·八九로 前月中의指數에比하야 一○포인트四五(四分四厘七毛)의騰貴이오 前年同月에比하면 實로三八포인트九(一割九分一毛)의暴騰이엇다 調查品目三十種中 前月에比하야騰貴한것十六、低落한것四、保合十으로 그內容은 如左하다

▲騰貴品=玄米、糯米、大麥、小麥、大豆、粟、和金巾、三八紬、綿絲、生絲、綿布、再製鹽、木材、金物、牛皮、洋紙

▲低落品=小豆、石油、砂糖、豆粕

▲保合品=石炭、木炭、松薪、小麥粉、醬油、日本酒、麥酒、硫安、板硝子、燐寸

騰貴廿三品 低落단七品

이제 今年五月의 指數는 大正十四年十一月指數二四八·九○以來의記錄인데 前年同月과比較하야 그騰貴率을보면 如左하다

【騰貴品】二十三品

牛皮	十六割六厘
燐寸	十二割五分四厘
和金巾	七割五分四厘
木材	七割三厘
大麥	五割一分五厘
石炭	四割四分四厘
木炭	三割九分三厘
松薪	三割六分三厘
再製鹽	三割七厘
綿絲	一割三分七厘
金物	一割六分六厘
綿布	一割五分四厘
板硝子	一割二分六厘
三八紬	一割七厘
麥酒	一割
粟	九分三厘
日本酒	八分五厘
醬油	六分
小麥	四分六厘
玄米	二分三厘
砂糖	七厘
石油	六厘
硫安	二厘

【低落品】七品

小豆	三割一分一厘
生絲	一割七分九厘
豆粕	一割一分七厘
大豆	一割一分三厘
洋紙	一割九厘
小麥粉	三分一厘
糯米	一分三厘

東京都賣物價 比前月九厘高

日銀調查=五月의 東京都賣物價指數는 二四八、九로 前月에比하야 九厘의騰貴이엇다 調查品目百十品中騰貴四二品、低落三一品、保合三十七品인바 商品類別指數의 騰落比率은 如左하다

(單位%、▲印低落)

商品類別	前月比較	同前年比
食用農產物	▲○·二	四·一
其他食料及嗜好品	○·六	五·六
纖維原料品	▲三·一	▲一五·二
布帛類	○·九	九·○
建築材料	二·九	一一·一
金屬類	四·八	三三·三
燃料	一·二	三三·二
肥料	▲一·一	一·五
工業藥材	▲○·五	一○·七
其他	二·四	三·八
總平均	○·九	三·一

(二○品)

이제全面的物價高의 原因을들면 如左하다

一、彪大한軍事豫算이 各方面에 浸潤해진것

一、原料生產減少에基한 先高豫想의思惑買及 買溜傾向을 充分히抑止할수업는것

一、海外原料品에對한 輸入爲替許可가圓滑치못하야 原料不足인것

小賣
主要十一都市
平均指數一分九厘高
京城은二分六厘高

總督府商工課調查

總督府商工課에서調查한 五月中全朝鮮重要十一都市의 小賣物價를보면 調查品八十五種中 騰貴가五十五品、低落이十四品、不動이九品으로서 平均指數는 一三八、四로서 前月에比하야一、九%의 騰貴를보이고잇다 이것을 各都市別로보면 新義州及清津이外에는 모다騰貴하고 釜山四、五 京城二、四 仁川三、二 木浦二、○ 大邱一、九 平壤一、二 鎭南浦○、一 元山○、七等의騰貴率로되엿는대 이것을物品種類別指數로보면 如左하다

	前月에	比하면
食料品	一三三、三	四
衣料品	一四三、九	九
建築材料	一四七、六	六
燃料	一三五、三	三
雜品	一四八、四	四
平均	一三八、四	四

이것을 前月에 比하면 食料品○、七 衣料品四、八 建築材料三、二 燃料○、四 雜品二、八 平均一、九%의 騰貴이다

商工會議所調查

事變後僅一年에 物價의 騰貴相은 顯著한것이잇서 이抑制策으로 政府에서도 種種對策을 講究中이나 依然히 物價騰貴는 繼續하고잇다

即 京城商工會議所調查에 依하면 五月中 京城小賣物價指數(昭和八年中平均基準)는 總平均一三七、八二로서 이것을 前月中의 一三四、二七에 比하면 二分六厘의 騰貴인데 그 內容을 示하면 如左하다

	五月中	四月中
穀類	一三四、五	一三四、六
生果	[illegible]	[illegible]
肉類	[illegible]	[illegible]
海產物	[illegible]	[illegible]
飲料水	[illegible]	[illegible]
衣料品	[illegible]	[illegible]
建築材	[illegible]	[illegible]
燃料	[illegible]	[illegible]
雜品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	一三七、八二	一三四、二七

以上과가티 穀類는 ○、四八 海產物 六、五○ 飲料水 ○、四八 衣料品 六、六九 建築材料 三、○一 雜品 四、五四의 各昂騰이고 騰貴치안흔것은 牛肉類뿐이며 低落된것은 업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다 또 各品別에 騰落을 示하면 左와如하다

◇騰貴 白米、麥粉、鮮魚、鹽、缶詰、鷄卵、子、麥酒、粗布、細布、白木、綿、모스린、布團綿、싸-지、麻布、洋襪、板材、鐵釘

◇低落 小豆、絹絲、絲、以上과 가티 低落은 單두가지고 其外엔 前月과 大差업는不動市勢이다

朝鮮米新市場
北支需要調查

北支方面에의 邦人進出에 伴하야 이方面의米穀需給은 早晚間題가될것이며 同地方의需要米는 當地에서 供給한다면 運賃關係로 當然朝鮮米의進出이 豫想됨으로 總督府米穀課에서는 基礎調查를 하고잇는데 依據資料가업스므로아직 아무結論에도 達치못하얏다 同地方의 米作은相當히 有望性이잇다고는하나 邦人의嗜好에 適當할만한 優良品을 生產함에는 相當한時日을要하므로 그때까지는 必然的으로 朝鮮米의 需要를喚起하게되겟고 朝鮮米로서는 비록二十萬石二十萬石의 少量이라도 新市場을開拓케되므로 米穀課에서는 係官을 特派하는等의 方法에依하야 徹底的調查를進할 意向으로써近間具體化하리라한다

株式 閑散裡 底堅

今日의市勢(十五日)

前場閑散 昨後場의下滋後 今朝外電의 少反撥을 入하야人氣는 比較的 底堅하야 市勢는 續落되지안코 東新五低、鐘紡二高로區區寄付한것이 賣買極閑散하야 膠着不動이엇다가 結局東新百四十八圓六、鐘紡二百四十八

後場底堅 後場은 依然閑散裡에 東新一低 鐘紡不變으로 寄付한後 少反撥에 大阪東新、鐘紡이 各其九圓臺로 回復하야 底堅이엇다

無活氣場面!

昨朝對支援助를爲한 英佛蘇의 密約說等을 傳하야 一落을面할것갓든 市勢도昨後場의 下滋今朝의保勢로 意外底堅商狀을 보이고잇는데 最近의 情勢로보면 國外로는 英米佛蘇를 中心으로 外交問題는 다시어지러운 場面을展開하고 國內로는 對支根本策 對蘇策等의重大問題를 擁伏할 五相會議를압두고 그推移에 深甚한注意를 하지안흐면 안될 順序가되엿고 賣方은이機會에 한번賣叩하고저하는態度로臨하고 買方은 적어도 積極買만은 그時期가아니라고하야 躊躇하야結局小幅動搖面이되고말엇는바지금으로는賣方의 策動도 거의徒勞에끈첫스며 强氣도 現增不可로 勇氣를失하야 모두 氣迷에陷하야 形勢展開를 기다릴박게업시되매 自然賣買는 閑散을極하고 따라場面은 夏枯나타나는 無活氣의靜寂狀을보이게 된것이니 局面轉換이업고는 어려운모양이다

休養期의靜寂

漢口陷落을 目睫에두고 國府의動搖는想像以上이어서 結局鄭州防備를云云코 黃河를決潰하는等의 劣惡한手段까지 取하게되어 鄭州攻略戰은 遲延될수박게업스나 揚子江溯江部隊의 活躍과 함께 結局漢口도 不遠陷落될것으로 보아야할것이오 英、米、佛、蘇의 執拗한 支那援助態度는 最近에 더욱 活躍하게된모양이어서 이方面의 警戒는 極히 嚴重하나 이모든것도 軍事的勝利에는 아모런 効果도 업슬것이 明白하므로 時期의 遲延은잇슬지언정 大局을 左右할수는업슬것이다 ... 그러므로 市勢의 推移는 休養期의 保合으로 當分間 閑散이 繼續될것으로 보는것도 無理가아니라고 ... 局面轉換이라도 업는限 市勢를 推進할 힘도 또한 업슬것이다

市場小感

株…昨日의 落潮에比하면 今朝의市勢는 閑散中에도底堅 ▲이底堅狀은 勿論賣方도 突込은 警戒하는듯? ▲그러면이 機會를 겨누어 買煽이可能할까하면 賣込以上으로 買警戒가嚴重 ▲말하자면 아무리悲觀的見解로 市勢에臨하고저하더라도 價位는 이미賣込할餘地가업고 ▲買進하기爲해서는 環境과材料의따뜻한 保護가缺如 ▲氣迷는 濃霧가자욱하야 咫尺을分辨키어려운局面 ▲이러하야 人氣는 氣迷속에 거리빠저 그去就에迷타 ▲興味와根據를喪失하면 모두가傍觀뿐이니 따라閑散이오 市勢는膠着될수박게업다 ▲그러다고 大局을悲觀할 必要는 조금도업고 暫時休養期의保合이어 持續對策에기다릴것으로 보고 局面轉換을 기다릴順序

米…今朝는또雨天! 朝鮮의 移秧은順調로完了될모양 ▲南鮮地方에는天候의險惡으로要苗의 成長이不良하야 移秧하기에困難云云 ▲中部地方에는 雨量이 過大하야 高原地帶에서부터먼저移秧 例年과의正反對의現象 ▲何如間朝鮮地方은 用水不足보다 用水充分한것이豐作의兆朕 ▲그러나豐作의 翌年으로서 需給의樂觀을 불하지못하게되엿스니 消費力이얼마나增進되엇는가를可知 ▲何如間 事變이 終了되기까지는 米價의互落도 期待키難하거니와 統制政策의 關係로暴騰한다는것도難 ...

今米界의 情勢를 綜合하여보면 動機를 期待하고잇슬뿐이다

期米 保勢나 頑强

前場底堅 今朝는 雨天으로 寄付 阪堂三十五圓十四錢인 五丁反落을擔하고 當限은 二圓○四錢인二丁低 中은 二圓二十一錢인 六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四十八錢인 一丁低로 寄付한後阪地十八錢까지 返戾하야 膠着不動하얏을 伴하야 一圓四十九錢으로 七節四十六錢까지小弛하엿다자 結局阪止十八錢을 入하야四十九錢에止하엿다

後場堅强 後場은 三十二圓五十二錢인 三丁高로 寄附한後 二節五十二錢同價後 五十一錢 五十錢으로 保勢이엇스나底意頑强하엿다

分岐難의保勢

新甫八月限이 寄會한後 一擧掉上으로 三十二圓六十九錢까지 昂騰하엿스나 更히 더以上의高價를 보이지못하고 因而伸悩狀態로 約三十丁의 反落을示하더니 此에는 反히下遊商狀으로結局保合圈內를 脫出하지못하고新動機를 期待하고잇슬뿐이다

國債强保【東京電話】

어떠한 新材料를 생각하면 保合圈內의 [illegible] 休養 ...

產地依然强硬

昨年同期에는 四月의 天井을 보고 七月에 再하기까지 好順氣의 需給으로 移秧도 無難完了하고 딸아서 農家의 賣物도 旺盛한바잇서 高價로부터 二百三、四十丁의 大瓦落을 告하엿다가 七月初旬에 事變이 突發하면서 米價는 依然昂騰한바잇섯스며 딸아서 農家의 態度는 事變을 唯一한 契機로하야 絕對賣惜方針을 繼續하야 今日에 至하게되엿던것이다 그러고 昨年의 朝鮮米作은 豐作이엿슴에도 內地移出의 激增 又는 北支의 輸出이 不少한 關係로 反히 需給의 不安이잇지안할가한 懸念도 不無한 狀態임에따라서 農家의 態度는 더욱더욱 强化하야 現下移秧의 樂觀을 뭇함에도 不拘하고 賣惜不急하는 모양이다

天候는 稀代의 好雨量으로 今年의 移秧은 無難히 進行되는 모양이나 ... 好天候로도 產地의 賣物이 例年과 如히 出廻되지안어서 容易히低落을 許하지안코 新動產을 期待할뿐이다

今日財界(十五日)

◆米(單位圓) 今日終値 比前日
仁取期米先限 三二·[illegible] 不變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正米(一等)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單位十錢) 今日終値 比前日
朝取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
大阪三品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 軟調나 下支

京城不變 天候는다시陰鬱하야저서 好順調한人氣로同淸算市場은低價豫想 人氣가弱化하엿스나 奧地의賣物薄에 끌리어 軟化치못하고 市勢도前價同樣으로 保合이엇다 ㊀三等三一、七○ 四等三一、五○ 一等白米三三、三五

仁川保合 移秧은 內鮮이모다 順調로 進捗되여 定期의 低迷와 人氣軟弱으로 거의 賣傷觀態度이나 所持側으로서는 아직도 目下의價位에는 滿足치안코 高價出現期待로 賣盜하야 賣買는 閑散하고 唱價도 結局保合이엿다 ㊀穀良三等 三一、七○ 四等三一、七○ 銀坊主三等 三一、九○ 四等三一、[illegible] 一等白米三三、三○ 四等三一、三五 ㊁三三、三○

釜山軟弱 奧地의 整理的 賣物增 傾向의鮮狀期待로市場中 唱價도 이에따라 五低로低落하엿다 順氣續讚에따라 人氣不添하야 軟弱裡에 이엿다 ㊀穀良三等 三一、四五 四等三一、二五 一等白米 三三、三○

大邱膠着 無材料時代로變 賣買方이모다 靜觀狀이여서 場面은 該產으로閑況이며 當用必需側의 消極的買物이 散見하는정도로 市勢前價同樣의 不動保合이엿다 ㊀穀良三等三一、八○ 四等三一、六○ 一等白米三三、一五

群山下支 幸來米의品質良好로 朝鮮米는 新米騰貴氣分을 加하야 近年에업든 好順으로大豐作人氣를益益노괴 產地의 期待를期待하고 內地는持久態勢를取하야 照應은依然이라고 奧地大口側도 여러가지의 軟材가 目前에突出되여 整理的 賣物出回을 表示하기에이르럿스나 正租의側面으로 市中의賣物은 一兩日頃를 狀態로 各地淸算의 小高를보고 實需米側의 手當도兼하야 市勢前價同樣으로 下支이엿다 ㊀銀坊主三等三一、九五 四等三一、七五 一等白米三三、○○

木浦釘付 好順調로 人氣의 擴大로 此邊期正米가모다 釘付的保合商狀을 呈하고잇는데 目前은 어떠한好材料가出現치안는限 無活氣의 閑散이 繼續될것으로 豫想된다 ㊀銀坊主三等三一、二○ 四等三一、九○ 一等白米三二、九五

朝鮮取引所の躍進
朝鮮曾見記
異彩ある東和鑛業
記事掲載のダイヤモンド 十一日號郵券十錢 御送附の方に贈呈
京城明治町一ノ五九
昭和證券株式會社

海外經濟(十四日)

[illegible]

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期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 證券部·期米部 仁川 吉村取引店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米町三丁目 電話

京城物價(十五日)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